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 버려 중도를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월 26일)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법정 스님 원적 10년 '무소유' 향훈 기린다

맑고향기롭게, 10주기 좌담회 · 사진전 등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상을 떠나면서도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가 열린다.

법정 스님의 입적 10주기를 맞아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서울 길상사가 10주기 추모법회를 비롯한 선양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법회를 음력 기일인 2월 19일 길상사 사시예불 후인 오전 11시에 봉행한다.

법회는 법정 스님이 마지막까지 남긴 무소유 가르침에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간소하게 봉행될 예정이다.

추모법회는 명종,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종사영반(영단삼배, 헌향, 헌다, 헌공, 헌화), 길상사 8대 주지 및 맑고향기롭게 4대 이사장 덕일 스님 인사말, 법정 스님 영상 법문 '스스로 행복하라'(2006년 4월 16일 봄정기법문), 추모 법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무소유, 음악 · 좌담으로 기려

이와 함께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길상사 길상선원서 법정 스님 추모 의미로 사진전이 열린다. 사진전에서는 생전 스님의 모습을 길상사에서 가까이 사진으로 기록했던 일여 이종승 작가와 불일암과 길상사에서 스님의 모습을 기록한 우경 유동영 작가 외 사진작가들이 맑고향기롭게에 기증한 사진이 전시된다.

또 3월 8일 오후 1시 30분에는 길상사 설법전에서는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무소유를 읽다'도 열린다. '무소유를 읽다' 음악회는 스님이 남긴 무소유 정신에 대해 음악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펼쳐진다.

여기에는 법정 스님과 인연을 나눈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문학인으로는 '슬픔이 기쁨에게' '풍경소리'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등의 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호승 시인을 비롯해 현대문학상, 천상병시상을 수상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선우 작가가 참여한다. 그리고 법정 스님 생전 인연이 깊었던 이계진 前 국회의원(맑고향기롭게 前이사)와 변택주 작가(맑고향기롭게 前이사)가 참여하며, 정인성 시낭송전문가(수원시낭송가협회장)도 함께한다. 음악가로는 음유시인 김현성과 맑고향기롭게 노랫말 홍보대사 박창근, 김은진 씨가 참여한다.

음악회서는 무소유, 오해, 나그네 길에서, 미리 쓰는 유서, 본래무일물, 나의 애송시 등을 낭독하고, 출연자별로 법정 스님의 수행자로서 모습과 더불어 문학인으로서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또 2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네 번째 일요일에는 길상사 설법전에서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 좌담회 '법정, 나를 물들이다'도 진행된다. 좌담회는 초청 명사가 20분 발제를 한 뒤, 명사와 진행자가 1:1 좌담 및 청중 좌담을 진행한다.

다양한 문화행사도 연중 개최

이와 함께 법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절판된 저서들을 전자책으로도 만나는 기회가 마련된다. 법정 스님은 입적 당시 본인의 저서 절판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법정 스님의 모든 저작권을 상속받아 관리하는 맑고향기롭게 측은 저서 계약기간 이후에는 출판 및 저서 보급 금지를 출판사들과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많은 대중이 법정 스님의 글을 접하길 바라는 신청을 맑고향기롭게에 함에 따라 맑고

2월 19일 추모법회 시작으로
스님 추모행사들 잇달아 열려
음악 · 토크 등 아우른 문화행사
법정 스님 추억할 사진공모도

향기롭게는 회원들이 홈페이지에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책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4월부터 스님의 저서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진뿐만 아니라 스님이 수행해 온 다양한 수행처의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전도 열린다. 스님의 출가고향 마을인 해남 우수영을 비롯해 통영 미래사, 하동 쌍계사,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서울 봉은사, 순천 송광사, 불일암, 서울 길상사에서의 스님이 수행하는 모습, 대중과 함께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또는 이들 산사의 풍경 및 사찰 전통 건축양식 등을 소재로 한 사진을 응모하면 된다.

또 부처님오신날 문화행사로 4월 24일부터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금강경 모음전'이 진행되며, 6월 6일에는 제4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티벳 난민 어린이를 위한 법정 스님의 '슬기로운 어린이 동화책' 티벳어 번역보급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맑고향기롭게는 "입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저서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스님의 말씀이 혼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0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 예방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중국 피해지역 구호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노덕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불교계 '자비 손길' 잇달아

조계종, 中 신종 코로나 피해 구호기금 1억원 전달

종단협 · 천태종 중국에 마스크 지원
아름다운동행 취약계층 대상 모연도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국의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불교계가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 예방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중국 피해지역 구호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13일 현재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5만9822명으로 누적 사망 1367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의 구호기금은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감염예방 물품과 구호물품 구입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달식 직후 싱하이밍 대사는 "조계종의 지지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는 엄격한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는 1600여 년 전 중국을 통해 전래됐다. 이후 한국과 중국불교계는 꾸준하게 교류하며 상호 발전해왔다"면서 "작은 성의지만 병마에 고통 받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잘 사용됐으면 한다. 종단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행 스님과 싱하이밍 대사는 양국 불교 교류에 대한 환담도 나눴다. 싱하이밍 대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중일불교도대회 개최지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앞선 한국 대회는 서울에서 진행돼 올해 대회는 부산과 통도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3월 25~2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개최지가 확정될 것"이라며 "대회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 일정 허락되면 대회에 참석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 사회부장 덕조 스님과 최재천 前 국회의원, 취환 한중문화우호협회장이 함께 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은 사회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과 수습 지원을 위해 긴급 모금을 시작했다. 이번 모금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모금은 아름다운동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전화 문의로 동참할 수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월 30일 중국 후베이불교협회에 마스크 4,000장을 보낸 데 이어 2월 10일까지 후베이불교협회에 추가로 4,000개를 보냈다. 또한 국청사(저장성) · 옥천사(후베이성) · 광효사(광둥성) · 보타사(광둥성) 등에 총 1만6000여 개의 마스크를 지원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도 30개 회원 종단의 뜻을 모아 마스크 1만장(15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지난 1월 31일 후베이불교협회에 보냈다.

이와 함께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진호국가불사를 봉행한다. 진각종 총인 경정 정사는 2월 월초불공을 앞두고 전국의 심인당에 '코로나19' 식재서원 강도불사의 교시를 내렸다. 총인 경정 정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내외 큰 우려가 있다"면서 "전염병의 소멸을 위해 2월 월초불공에는 특별강도를, 이후 식재될 때가지 각 심인당에서 서원을 이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INDEX 조계종 가사원 현장을 가다 5면 |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퇴임 인터뷰 7면

종단안정과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담화문

국내외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종단의 일부 교구본사에서 발생한 갈등과 혼란, 그리고 사찰 경내에서 벌어진 도박의혹 사건이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사회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던 과거 승가의 비불교적, 반사회적 행위의 아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마땅히 마음조차 내지 말아야 할 도박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더욱이 수행과 전법의 공동체 공간이자, 국민들에겐 휴식처이며, 전통문화의 보고임을 자부해 온 사찰이라는 공간에서 파승가적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탐욕으로 밤을 새워가며 도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출가수행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 드립니다.
출가수행자가 한시라도 놓지 말아야 할 제일의 화두는 화합일진대 조계종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교구본사에서 파승가적 ·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단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의혹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종단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할 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종단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며, 종단의 진정성있는 조치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입니다.

승가공동체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승려 개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한국불교의 전통인 승가공동체를 통해 유지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종정예하와 원로의원스님들께서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종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는 격려와 가르침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종단은 종정예하와 원로의원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종단 안정과 화합 그리고 승가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종단혼란을 조장하고 종단 집행부를 흔들고자 하는 삿된 시도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러한 반 종단적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헛된 망상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승가의 잘못과 허물을 꾸짖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종단이 정한 규율인 종헌종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허물을 여과 없이 사회에 노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한국불교에는 아직도 희망과 저력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그 믿음을 위해 사부대중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호도 흔들림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4(2020)년 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Weekly Focus

법정 스님 향훈 짙어진 10년

몸소 실천한 '무소유' '맑고 향기롭게' 깃들다



삶이란 무엇일까? 법정 스님은 이 시대의 화두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소유를 실천하며 대중에게 방향을 알린 진정한 수행자이자 시대의 참어른이었다.

법정 스님은 스스로의 삶을 통해 '무소유', '버리고 떠나기'를 여실히 보여줬다. 스님은 한 번도 종단 행정을 보거나 사찰의 소임을 살지 않고 홀로 조용하게 살다 갔다. 다른 성직자들이 높은 직책을 임명받거나 사회,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면 법정 스님은 올곧고 순수한 인격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드러나길 싫어해 깊은 산속에 숨어 지냈지만 오히려 그것이 스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점점 크게 만들었다.

산중에서 세상과 동떨어져 보였지만 스님은 세상과 항상 연결돼 있었다. 바로 글을 통해서다. 법정 스님은 비단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과 비유로 불교 교리를 삶의 철학으로 전파시켰다. 읽는 것만으로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 스님의 책은 늘 베스트셀러였다. 1976년 출간된 〈무소유〉는 180쇄가 넘게 찍힌 수필집이다.

스님은 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교인으로서도 큰 족적을 남긴다. 1997년 12월 길상사 개원법회에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했다. 법정 스님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듬해 명동성당에서 특별 강론을 하기도 했다. 길상사 마당의 관음보살상을 독실한 천주교 신자 조각가인 최종태 前 서울대 교수에게 맡겨 화제를 모았다.

맑고향기롭게서 이어온 가르침

법정 스님이 떠난 10년, 스님이 남긴 자취는 어디에 있을까. 가장 먼저 스님이 활동했던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가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1993년 8월 법정 스님이 출가자로서 작은 역할이나마 하겠다며 '맑고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준비모임'을 결성하며 탄생됐다. 1994년 3월 구룡사서 맑고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첫 대중강연 및 발족식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에서 회원을 모집해 범불교적인 운동으로 이어졌다.

1995년 김영한 여사의 대원각 기부 시에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으로 받아들인 일화가 유명하다. 법정 스님은 맑고향기롭게 창립 10주년을 맞아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한다"며 운동 방향을 정의했다.

이를 통해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는 '마음을 맑고향기롭게' '세상을 맑고향기롭게' '자연을 맑고향기롭게'의 세가지 방향으로 현재 사회 곳곳에서 성과주의적 활동보다 생활 속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마음을 맑고향기롭게 활동은 월간 〈맑고향기롭게〉를 발행, 군법당과 병원, 교도소 등에 무료배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길상사 주말선수련회를 통한 수행문화 진작과 강연회, 음악회 등도 지속 개최하고 있다.

세상을 맑고향기롭게 운동은 매년 4월 초 어려운 형편의 50명 내외 장학생을 선정해, 학비전액을 지원하는 '길상화 장학 사업', 1999년부터 시작한 반찬나눔사업, 어르신 전화말벗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1999년부터 시작한 반찬나눔사업은 현재 저소득층 500여 가구에 매주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청소년봉사자와 독거어르신의 만남을 주선하고 월곡청소년센터, 진인노인요양원 등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을 맑고향기롭게 운동은 친환경 화장품만들기 강좌와 숲기행, 의류재활용봉사모임, 녹색나눔장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의류재활용 봉사는 못입는 옷을 이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 판매,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활동을 펼친다.

맑고향기롭게 이사를 지낸 변택주 작가는 "스님이 세상에 남기신 건 바로 '사랑'이며 이는 바로 차별없는 자비"라고 말했다. 변 작가는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닌 바로 나눠쓰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기에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법정 스님이 주석하던 송광사 불일암은 스님이 지내던 오두막과 텃밭 등이 온전히 보전돼 있으며, 길상사에는 매년 스님의 추모법회와 함께 스님의 향훈을 되새기는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불일암을 지키고 있는 덕조 스님은 "청빈의 삶을 강조하신 스님께서는 가시며 승단의 장례가 간소화 되는 등 불교 내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후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점점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듯해 안타까움이 많다. 10주기를 맞아 평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교감을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기자의 펜

각박해지는 현대사회 'Post 법정'을 꿈꾼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스님들을 꼽는 경우는 점점 줄어 들고 있다. 2010년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불교분야 존경받는 인물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원효대사와 청담 스님 등이 꼽혔다. 현재 살아계신 스님은 없었다.

최근에도 한 아르바이트 포털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법정 스님이 가장 존경하는 불교계 인물로 꼽혔고, 성철 스님과 원효 스님이 그 뒤를 이었다.

그나마 생존한 스님 중 존경하는 스님을 꼽힌 이는 법륜 스님이었다. 정토회를 통한 사회참여와 즉문즉설로 국민멘토로 자리 잡으면서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물질과 자본의 논리에 얽매이면서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법정 스님의 입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이 평소에 전한 가르침을 통해 단순히 불교 교세 확장이 아닌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스님, 그리고 불자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재가불자가 본 법정 스님

인간 '법정', 마음 따뜻한 분



이계진 前 국회의원

저는 30년전 가족과 송광사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법정 스님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나운서로 이름이 좀 알려졌을 때인데 법정 스님께서 제게 '향적(香積)'이라는 법명도 내려주셨고 유발상좌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은 스님께 '가진 게 많아 무소유 실천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자 스님은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이 벌고 많이 갖되 이를 나누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외부로 비치는 모습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분 같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따뜻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엄격한 수행자의 이면에 사람에 대한 감성이 살아있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내외가 불일암에 갔을 때 스님께서 직접 국수를 삶으시며 손으로 면을 헹구시던 모습이 기억 납니다.

한번은 스님께서는 기차를 혼자 타고 오시는데 창 밖에 한 마을 가옥 빨랫줄에 기저귀가 펄럭이는 것을 보고 보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故김수환 추기경도 비슷한 일화를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의 그런 말을 듣고 수행자들이 갖는 인간적인 모습, 우리 사회에 대한 따뜻한 향수로 느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법정 스님의 향기가 맑게 남아 있는 것은 스님이 가지신 이런 주변과 우리 사회에 대한 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님의 문학 '철저한 수행' 바탕



정찬주 작가

법정 스님은 수많은 명저를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글을 볼 때는 문학인의 글이 아닌 수행자로서의 글을 봐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소통의 방법으로 글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스님께서 글을 쓰시게 된 계기는 해인사서 계실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보살이 '팔만대장경이 어디에 있나요'라고 묻자 스님은 장경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살이 '아 빨래판 같은 것'이라고 답했죠.

스님은 그때 느끼신 겁니다. '스님들에게는 대장경이 성보지만 모르는 대중의 눈에는 빨래판이구나'라고요. 그 이후 스님은 운허 스님이 계신 동국역경원으로 가 우리말대장경 편찬에 동참합니다.

결과적으로 스님의 글은 일반인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일종의 시대의 해방구가 됐습니다. 그 바탕에는 스님의 수행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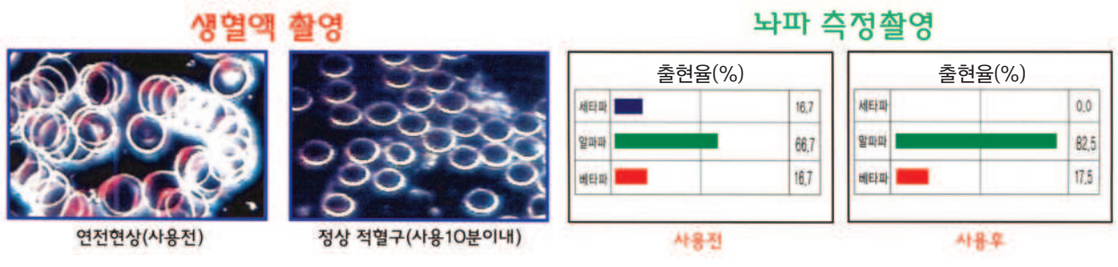
'글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스님에 대입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불일암에서 철저하게 개인생활을 지키신 그 바탕하에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 예각까지 겸하니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입니다. 저는 후대에서 법정 스님의 글과 같이 오랫동안 남을 글이 나오려면 스님처럼 수행을 통해 일관된 하나의 사상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이 흔들리는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한국전쟁 70주년, 해인사 수륙대재 연다

6월 6~7일, 해인사 일원서 문화행사 등 계획

국군 · 유엔군 등 국가 차별 없이
5가지 희생자들 위한 영단 설치
각국 · 시민사회계 대표인사 초청
"전쟁 참상 알리고 평화 기원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수륙대재를 여는 해인사.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사진 가운데)이 행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해인사 홍보국장 효범 스님, 사진 오른쪽은 총무국장 진각 스님.

올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가 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대재를 거행한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6~7일 해인사 일원에서 개최하는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 · 추모음악회' 계획을 발표했다.

현응 스님에 따르면 해인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당시 전쟁으로 사망한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남북민간인 등 다섯 가지 유형의 희생자들을 하나의 영단에 안치해 천도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70년을 이어오는 동족상잔의 아픔과 원한을 씻어내고, 해원 상생을 이뤄 남북겨레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됐다.

먼저 6월 6일에는 '한국전쟁 70주년 해인사 추모음악회'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쟁 참상과 평화 희구에 대한 사진전'과 설치예술, 한국전쟁 상징을 도안으로 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후 7시에는 특설무대에서 △진도씻김굿 △전쟁과 평화 주제 창작 단막 뮤지컬 △위령시 낭송 △초청가수 공연 △어린이합창단 무대 등이 이어진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올해 윤4월 보름이 양력 6월 6일이다. 손 없는 달인 윤달에 국가적으로 전쟁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이 겹쳐 그 의미가 보다 크다"며 "전쟁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평화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음악회와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행사인 수륙재는 7일 오전 10시에 봉행된다. 전통의식과 병행해 의장대, 취타대, 어린이합창단 등이 함께 위령음악을 연주하며 사회 각계의 평화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초청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전쟁희생자 각국 대표들의 방한도 기대를 모은다. 해인사는 수륙재를 위해 다섯 가지 희생자들 영령을 오각형 모양의 '오로단(五路壇)'에 안치하고, 추모등을 해인사 일원과 진입로에 설치한다.

현응 스님은 "3월부터 해인사를 방문하는 많은 참배객들에게 소원지를 받아 행사장 소원나무에 걸었다가, 행사 당일 화로대에 사르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려 한다"면서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도 추모의 의미를 담아 백등을 권유, 국가차원에서 한국전쟁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인사 수륙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관사 · 삼화사 국행수륙재와는 달리 전통과 현대문화를 접목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위령천도의식을 한문이 아닌 우리말로 진행해 수륙재 참가 대중에게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현응 스님은 "계율을 설할 때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공덕을 쌓는 법이다. 모든 불교의 가치는 알아듣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인사는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사명대사께서 수년간 계셨고,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였던 용성 스님이 수행한 사찰인 만큼 국가와 사회를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쟁 공식 통계에 따르면 희생자는 총 137만4195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군 13만7899명, 경찰 3131명, 남측민간인 24만4663명, 북측민간인 28만2000명, 유엔군 3만7902명, 북한군 52만명, 중공군 14만8600명이다.

조계사, 코로나 피해상권 '상생 도모'

기자회견서 올해 계획 발표
국화축제 ·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서점과 템플스테이 연계
소외계층 위한 천도재 봉행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가 올해 '이웃과 함께 하는 조계사'란 주제로 지역상생 도량으로 거듭난다.

조계사(주지 지현 · 사진)는 2월 12일 관음전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 지속 추진 △포교와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신도조직 강화 △불교전통문화 계승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법 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법활동 강화다. 지난해 12월 30일 조계사 봉사단인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이 서울시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되고, 올해부터 사회복지사업에 본격 나선다. 그동안 집수리와 반찬나눔, 의료봉사, 독거어르신 돌봄 등 대사회 자원봉사에서 정부 사회복지사업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행복나눔가피봉사단 역량을 강화하는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대회'와 종로구 관내 무연고 어르신을 위한 '무연고 어르신 천도재' 등도 진행된다.

또한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속에 지역민을 위한 사찰의 상생도 추진된다. 조계사는 기존 템플스테이를 경복궁 책방길 동네서점 등과 제휴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 이로써 경복궁 인근 서점 탐방과 조계사 찻집 가피, 조계사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사동 상인회와 협의, 매년 10월 대규모로 열리는 조계사 국화축제 기간 인사동을 국화로 장엄해 국화축제 확대를 통한 상권 돕기에도 나선다.

인근 직장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점심(點心)' 도 개발, 기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점심'은 최근 늘고 있는 채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조계사 만발식당 등을 활용, 인근 직장인에게 채식단을 제공하고 짧은 점심시간 요가와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학교 법회를 어린이법회와 중 · 고등학생회 법회로 구분하고 어린이, 청소년 신도증 발급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의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조계사 어린이집을 4월 9일 정식 개원해 운영한다. 또 조계사 종각 보수사업 등 도량정비도 진행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의지처가 되는 사찰이 되고자 한다. 사찰은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라며 "한국불교 총본산이라는 위상에 맞게 불교의 미래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도박 등 파승가 행위 엄벌"

고운사 · 법주사 등 교구본사 의혹에 담화문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성추행 의혹과 제5교구본사 법주사 스님들의 도박 의혹이 불거지며 조계종단 안팎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종단 행정수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태 해결을 위해 종단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원행 스님은 2월 11일 '종단안정과 승가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의혹을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담화문 발표는 총무원 대변인인 기획실장 삼혜 스님이 맡았으며,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호법부장 성효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이 배석했다.

원행 스님은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대중의 지탄에 먼저 참회의 뜻을 전했다. 원행 스님은 "전통문화의 보고임을 자부해온 사찰에서 파승가적 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탐욕으로 밤을 새워가며 도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출가수행자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 어떤 말로도 국민여러분과 사부대중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상실감을 대신할 수 없다. 참회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신속히 조사해 반드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며 "종정예하와 원로의원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승가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담화문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사업부장 주혜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호법부장 성효 스님.

이와 관련해 현재 총무원은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며 각 사안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2월 17일 소집되는 중앙징계위 회의서 도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된 법주사 말사 주지들에 대한 직무정지가 예상된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호법부에서 도박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종단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중앙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여러 정황을 확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공개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호법부장 성효 스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조사가 미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장담은 어렵다.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송광사 자공 · 관음사 허운 스님 주지 임명

금정총림 범어사 現주지 경선 스님 재추대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에 자공 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에 허운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두 스님에게 각각 교구본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는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라며 "종단과 교구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일각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했다.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및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원각사 · 만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1988년 수계했다. 송광사 일산분원 정혜사 · 서봉사 주지, 신도시포교 총무원장 종책특보 등을 역임했다.


자공 스님


허운 스님

한편 금정총림 범어사는 12일 임회에서 방장 지유 스님 추천에 따라 차기 주지후보로 현 주지 경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부설 탄허아카데미(탄허강숙) 2020년도 1·2학기 강·좌·안·내

탄허아카데미(탄허강숙)는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 교육기관입니다. 2020년도 1, 2학기 탄허강숙 강좌는 선불교의 고전인 《육조단경》과 '선시(禪詩) 300수'를 강의합니다. 3월 첫주부터 시작되며,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배움, 탐구는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 2020년 1~2학기 탄허강숙 강의 과목과 일정

과 목	강 사	비 고	요 일
1학기 : 육조단경(六祖壇經) 2학기 : 임제록	정성본 스님	전 동국대학교 교수 (정년퇴임)	3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1-2학기 : 선시 300수(禪詩三百首) 선시해석과 감상	석지현	선시감상사전, 벽암록, 종용록 완역자	3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 장 소 : 원효불교연구재단 강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5 하나로빌딩 7층 711호.

지하철역 안내
- 1호선 종각역 3-1번 출구. 직진 20m 인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30m. 오른쪽에 하나로 빌딩이 보임. 도보로 5분 소요
- 3, 5호선 종로 3가역 5번 출구. 인사동 쪽으로 직진 인사동 4거리에서 왼쪽편에 하나로빌딩이 보임. 도보 10분 소요.
-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직진. 인사동 방면으로 내려오다가 인사동 4거리부근. 오른쪽에 하나로빌딩이 보임. 도보 10분 소요.
-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종로구청, 인사동 방면. 도보 약 12분 소요.

◆ 개강일시 : 2020년 3월 2일 ~ 6월 30일 매주 월요일 육조단경. 화요일 선시 300수
◆ 접수기간 : 2020년 2월부터 개강 직전까지
◆ 접 수 :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로 접수.
◆ 전화접수 : 02-732-2403~4. 010-3731-1586, 010-5226-2149
◆ 수 강 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5만원(일시불).
*전 2과목 수강시 40만원(10만원 할인 / 일시불)
◆ 수강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윤재승)
수강료 입금시 수강자의 이름을 동일하게 표시하고,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교재는 당일 배포.

강의실 변경 안내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 25. 하나로빌딩 7층 711호
원효불교연구재단 강의실.



명상의 길 안내하는 전문가 양성

용두산 미타선원, 명상지도사 2급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4월에 개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행복선 명상상담센터가 명상지도사를 배출한다. 사진은 행복선명상센터 명상지도사 수업 현장.

3개월간 주간 · 야간반 나눠
총 40명 모집해 집중 교육
실습 포함 100시간 교육 후
2급 자격시험 응시 가능해

수많은 중생이 스스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질문하고 부처님은 답을 했다. 그 과정이 상세히 담겨 팔만대장경을 이뤘고, 부처님은 대중에게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사용한 치유의 도구는 '명상'과 '상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처럼 명상과 상담으로 이 시대 현대인의 고통을 해결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길이 열렸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행복선 명상상담센터(센터장 하림)가 명상지도사를 배출한다. 명상지도사는 심리적 고통을 받는 현대인에게 명상으로 치유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센터장 하림 스님은 2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 심리상담사나 명상지도사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 부산에서 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불교는 다양한 방편으로 교화활동을 이어왔다. 이제 근본적인 불교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제시하고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각 사찰에 전문 상담소가 있어야 할 정도"라고 명상과 상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명상지도사 교육은 4개월 과정이며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진행된다. 2급은 3월, 1급은 9월에 정규과정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강의를 한 달 늦춰 4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강의 일정은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오후 7시이며 모집정원은 주 · 야간반으로 나눠 각 20명이다.

집중 수련 실습과정도 개최된다. 집중 수련은 2회에 나눠 각 10시간씩 총 20시간으로 1차 7월 3일, 7월 10일이며, 2차는 7월 5일, 7월 12일에 진행된다. 1차와 2차 중 시간은 선택 가능하다. 수강생들은 2급 명상지도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다. 행복선 명상상담센터 명상지도사 2급 응시조건은 100시간 이상 명상수련 경력(이론 36시간, 실습 20시간, 명상일지 30시간, 일일 수행일지 14시간)이며 집중 수련 실습과정은 필수다. 자격증 이수에 필요한 총 비용은 51만원이다.

행복선 명상상담센터는 2019년 명상지도사 자격과정(민간자격등록번호 2019-001992)을 개설해 올해 1월 10일 제1기 명상지도사(2급) 34명을 배출한 바 있다. 명상지도사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됐고, 스스로를 돕고 남을 돕기 위해 명상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명상지도사 2급 김미리(55) 씨는 "자격증 과정은 우선 나를 보고 알며 성장하는 시간이 됐다"며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했던 화의 뿌리를 알고 스스로 알아차려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군부대에서 봉사를 하는데 군인들과 봉사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 명상을 가르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명상지도사들은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어르신과 청소년들에 명상을 설명하고 실참하며 이끈다. 이에 앞서 센터 프로그램 보조 강사로 활동하며 충분한 연습 과정도 익힌다. 현재 사찰요리, 숲해설사, 비폭력대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등 여러 분야에 접목해 활용 중이며 중구노인복지관,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도 활동 중이다.

행복선명상센터에서 주목할 점은 강의내용이다. 불교 명상법의 근본이 되는 〈대념처경〉과 〈반야심경〉을 주 교재로 삼는다. 특히 〈반야심경〉에서 수행의 체계를 찾는 강의를 들어 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후 호흡명상, 오감명상, 몸 느낌명상, 몸의 움직임을 통한 명상 등으로 알아차림 훈련을 한다.

하림 스님은 "먼저 몸을 통해 알아차림 하면서 훈련해야 마음의 변화도 바로 보고,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힘을 얻는다"며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명상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강의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직면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수용하는 단계를 살펴본다. 행복선명상센터는 이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눠 '고집멸도'라고 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고(苦), 불편한 마음을 직면하는 과정은 집(集), 이후 일어남과 소멸을 지켜보는 것을 멸(滅), 마지막으로 수용하는 길을 찾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총 12강 가운데 몸과 마음을 직면해 소멸하는 과정과 수용하는 최종단계까지 경전을 토대로 한 이론수업과 실참, 마음 나누기를 통해 익힌다. (051)253-8686

전법활동 나설 불자인재 배출

금산사 화엄 · 수현불교대학 총 73명 졸업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화엄불교대학 졸업식.

금산사가 지역 전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에서 졸업생이 배출됐다. 2월 8일 화엄불교대학 2층 강의실에서 열린 화엄불교대학 31기 학림원 26기 졸업식에서는 화엄불교대학 38명, 학림원 12명 등 50명의 불자인재가 배출됐다.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금산사 주지), 전북불교회관 총무국장 우림 스님 등 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 동문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하유호 108순례단장을 비롯한 내빈과 졸업생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정선영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 양진우 불자가 이사장상을 수상하는 등 성적우수자와 특별 공로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성우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불교대학에서 불교교리를 익혔지만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1년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인연법을 바로알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가 전주혁신도시에 설립한 수현불교대학 2기 졸업식도 같은 날 열렸다. 23명의 불자가 졸업한 졸업식에는 성우 스님, 수현사 총무국장 응묵 스님, 이근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박두섭 불자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은 불교 교리와 역사 등 1년간의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그동안 화엄불교대학과 수현불교대학에서 배출한 불자는 3300명에 이른다. 한편, 남원불교대학도 2월 10일 졸업식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의식 기초부터 배워보자

태고종 부산종무원, 전통의식 1년 교육 개설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이 불교 전통의식을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강의를 개설하고 학인을 모집한다.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종무원장 자관)은 3월 3일부터 1년 동안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에서 불교전통의식을 개강한다. 개강은 3월 3일 오후 2시이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년간이다.

교육 내용은 △도량석 △사물 △시다림 △(나비춤)도량게 △천도재 △천수바라 · 화의재 바라 △명리학 등이며, 강사는 지효 스님(남운정사 주지)이 맡았다. 지효 스님은 10여 년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부터 각종 범음범패에 이르기까지 전통의식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홍익 범패단에 입단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홍익 범패단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영산재 및 합동 위령재, 호국 추모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효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전통 불교 의식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기초부터 상세히 설명해 깊이 있는 내용으로 수강생들을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010-4466-357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 다 음 -

●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2월 3일(음 1.10) ~ 4월 30일(음 4.8)**

●신고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신고서류

가.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인감날인)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인감증명서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8) 주민등록 초본(모든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9) 주민등록 등본(모든변동사항 포함)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10)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 1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4㎝) …… 3매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나.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본인서명)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기간만료 전) …… 1부
6)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7)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4㎝) …… 3매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8)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9)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승적말소자·직권제적자 분한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2회 이상 분한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는 별도의 교구심사를 거쳐 총무원에 상신하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1) 분한신고미필사유서(소정양식) …… 1부
2) 사찰거주확인서(소정양식) …… 1부
3)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도반등의 수행확인서(소정양식) …… 1부
4) 승납재기산 동의각서(소정양식) …… 1부
5) 제적등본 ※주민센터·구청 등 발급 …… 1부
※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 전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서류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분한신고 수수료
1) 201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 **없음**
2)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직권제적자 : **10만원**
※수수료는 재적교구본사로 납부함

●주의사항
1) **신고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려법 제34조의 7(분한심사의 처리) 제1항에 의거하여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2) 승적 말소란 본 종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함을 뜻합니다.
3) 모든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및 위 · 변조 사실이 확인될 시 종법에 의거하여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분한신고 양식 다운로드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 →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의처
각 교구본사 종무소
직할교구사무처 02)2011-1930~1932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3~1705

불기2564(2020)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2011년도 제정된 승려복지법에 의해 시작된 승려복지제도가 2020년 올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2,600여명의 스님들께 11억여 원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운영과 보다 많은 스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하오니,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근거종법 : 승려복지법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납부금액 : 월 10,000원
(단, 구족계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승려는 월 5,000원)
●납부개시 : 2020년 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납부방법 : 계좌이체
(소정양식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작성)

▫CMS(자동이체 : 승려복지회에서 7월에 출금 등록)
▫계좌이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국민 023501-04-262677, 농협 301-0262-9883-41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입금하시는 스님의 법명과 성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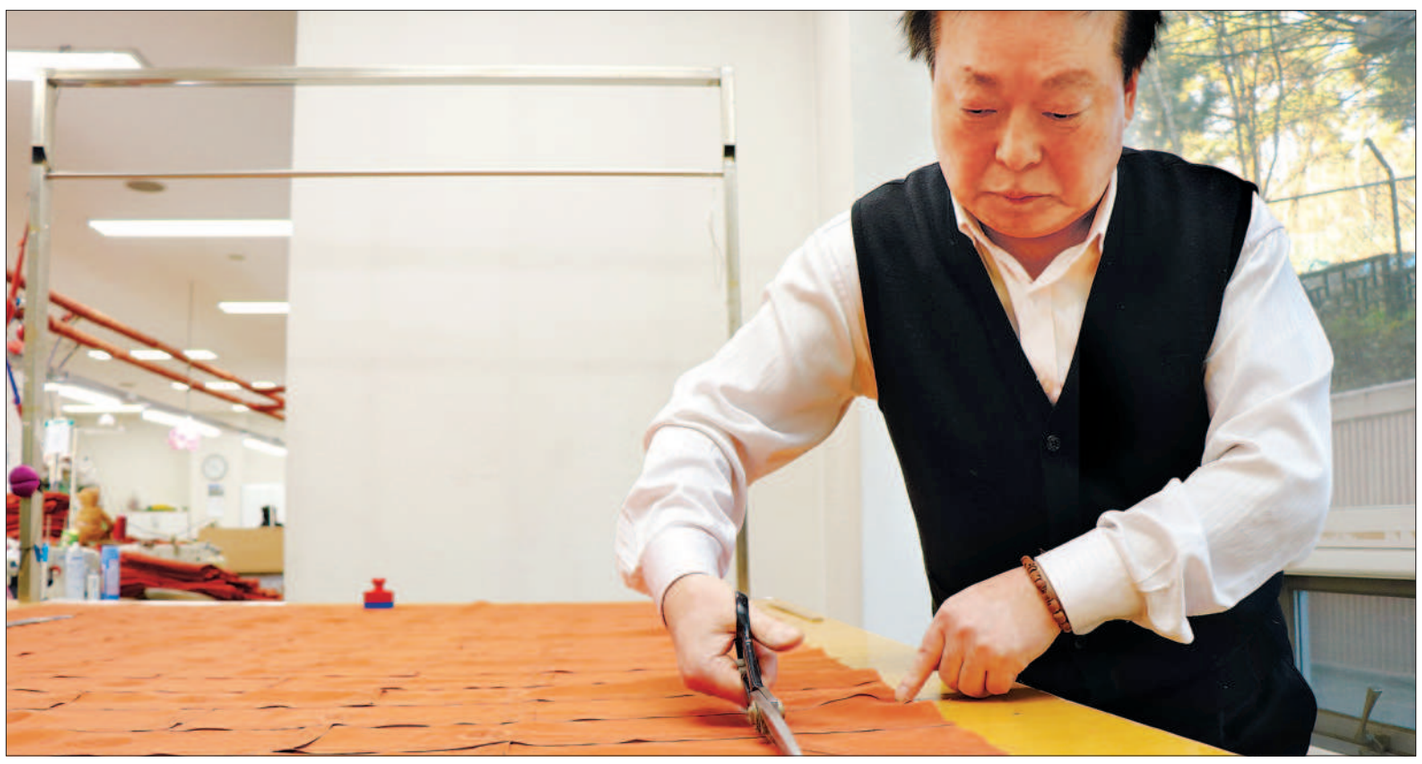
●제출방법 :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
●소정양식 : 조계종 홈페이지(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

불기2564(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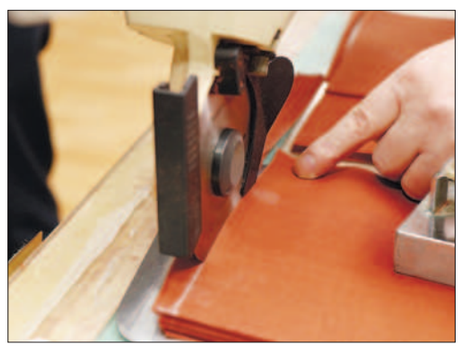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가사 조각이 겹쳐지는 '조' 부분을 재봉하는 강금임(57) 씨.



가사원에서만 13년째 근무하는 조래창 재단사가 가사 테두리 재봉작업에 앞서 가위로 가사 크기를 재단하고 있다.



가사 제작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장의 가사조각은 한 번에 전동톱날로 재단한다.



가사를 고정하는 연봉을 만드는 모습.

"福 짓는 최고의 공덕, 가사불사"

[현장] 조계종 가사원, 가사 제작 과정 공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가사는 가장 수승한 법의(法衣)다. 일반적인 승복과는 달리 교단 설립부터 존재해온 승가의 상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인 아난존자와 함께 왕사성 남쪽으로 유행하며 논과 밭두렁이 가지런하게 정비된 것을 보고 법의를 만들도록 해 지금의 9가지 가사가 전해진다.

한국불교는 이런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래 전부터 윤달이 든 해에 대대적인 가사불사를 해왔다. 올해 경자년 역시 윤4월이 들어 전국 사찰은 방생법회부터 기도정진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지만 가사불사 소식은 유독 뜸하다. '바느질 세 뜸만 떠도 공덕이 된다'는 가사공덕은 옛말이 된 걸까? 어쩌면 이 시대, 가사의 중요성을 사부대중이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연간 1500벌의 가사를 생산하는 조계종 가사원을 직접 방문,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가사를 보며 그 가치를 되짚어봤다.

가사 1벌로 수행 생활 어려워

'드르르륵… 드르르륵.'

2월 10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1층에 자리 잡은 가사원. 묵직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지런히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요란하다. 가사 원단이 수북이 쌓인 널찍한 공간에서 한쪽은 가위질이, 다른 한쪽은 재봉이 한창이다. 5명 남짓한 재가불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사를 만들고 있었다.

가사원은 2006년 지금의 '통일가사' 도입과 함께 설립됐다. 삼보륜이 직조된 괴색 통일가사는 승가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계종 승려라는 소속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현재 구족계 수계식이나 법계품서식에서 수여되는 가사 전부를 가사원이 도맡아 제작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사원의 존재조차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

"가사원이 설립된 지 벌써 14년이나 지났어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가사원을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최근에야 느꼈죠. 가사원이 널리 알려져야 가사불사도 활성화될 텐데….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서 우선 가사공양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리플렛을 전국 교구본사에 배포했습니다."

가사원 운영국장 돈오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과거에는 스님에게 가사 한 벌 공양하는 일이 큰 공덕으로 여겨졌는데, 요즘 그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스님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계식에서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가사는 모두 중앙종무기관 예산으로 제작된다. 하지만 가사 1벌만으로는 수행 생활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스님들은 적어도 2~3벌의 가사를 돌려가며 사용한다. 문제는 수계식 가사 외에 별도로 개인에게 필요한 가사는 사비를 들여 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유분 없이 가사 1벌로 평생을 보내는 스님들도 많다.

사미 · 사미니가 사용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가사인 '만의'를 만드는 데는 10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법계별로 제작비가 조금씩 높아져 대종사 · 명사가 수하는 25조 가사를 만드는 데는 50만원이 필요하다. 2018년 조계종 승려 소임공제에서 연간 6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은 스님이 28%, 1800만원 미만은 71%인 점을 감안할 때 불자들의 가사공양은 스님들의 수행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사미 · 사미니계 수계식에서 수계자들에게 주어질 가사. 수계자의 키와 몸무게, 가사 기장 등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스님과 재가자 소수정예 모여
연간 1500벌 이상 가사 제작
가사원 존재 모르는 불자 많아
"윤달 든 경자년, 동참 늘어나길"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가사는 6~7벌 내외. 가사 조수에 따라 소요시간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이 제작되는 21조 가사 기준으로 그렇다. 가사원은 올해 윤달이 들어 평년보다 많은 2000~2500벌의 가사 제작 계획을 세웠지만 가사공양 문의는 아직 많지 않다.

지극정성으로 제작되는 가사

지금의 가사 제작과정은 1960~70년대 스님들이 바느질로 손수 가사를 지어 입던 시절보다 간소해졌지만 여전히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제일 먼저 섬유업체에서 삼보륜이 직조된 통원단을 가사원에 보내면, 가사원에서 본격적인 재단 작업이 시작된다. 가사를 수할 스님의 키와 몸무게, 가사 조수에 맞춰 원단을 자르고, 각각의 조각을 재봉으로 이어 붙여 '밭 전(田)' 자 모양을 만든다. 가사를 수하는 스님과 이를 보는 중생이 모두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재봉이 끝나면 가사를 편히 접을 수 있도록 다림질하고, 테두리 작업과 가사를 고정하는 연봉 · 고리를 만든 뒤 명찰을 붙여 풀을 먹인다. 글이나 말로 하는 설명은 간단해 보이지만 현장서 마주한 제작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13년째 가사원서 붙박이로 근무하는 조래창(62) 재단사가 쉴 새 없이 가위질하며 말을 건넸다.

"가사는 일반승복과 달리 조수가 많아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기(가사제작)에만 집중해야 되거든요. 최고의 법의를 제작한다는 자부심 없이는 못 만들죠."

순간 13년간 한 자리에서 법의를 만들어왔다는 그가 경이롭게 느껴졌다. 가사를 만들며 힘든 점은 없었는지 묻자 그는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항상 재미있게 일한다"고 대답했다. 가위질에 고정된 그의 눈길을 따라 거침없이 잘려나가는 가사 원단이 대답을 증명하는 듯하다.

현재 가사원에는 운영국장 돈오 스님을 비롯해 사무간사, 조래창 재단사, 이연순 · 백영미(다리미), 강금임 · 강희례(재봉) 씨가 근무 중이다. 적게는 7~8년, 많게는 10년 넘도록 함께 합을 맞춘 이들 손에서 연간 1500벌 이상의 가사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들의 뒤를 이을 인재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스님들 손으로 직접 가사를 짓던 아름다운 전통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가사 짓는 일에 더 이상 스님들이 관심 갖지 않으며 생긴 현상이다. 이런 위기감을 인식한 가사원은 앞으로 스님들을 위한 가사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사원 도편수인 무상 스님을 모시고 전통가사 만드는 방법을 교육하려 해요. 아무래도 가사는 옛날부터 스님들이 직접 만들었던 전통이 있으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진 않았지만 1~2년 단위로 스님들을 모집해서 교육할 생각입니다. 가사 제작에 대한 일반인들의 교육문의도 있었지만 스님들 전수부터 공개모집 형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가사원 운영국장 돈오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종단 통일가사를 만든다는 자부심과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많은 불자들이 가사불사에 동참해 가사의 위상을 높이자는 호소도 느껴졌다.

"스님들께서 간혹 가사 제작을 승복점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종단에 가사원이 있고, 모든 스님들의 치수를 기록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사불사만큼은 이곳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공양, 최고의 공덕에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재를 마친 오후 5시, 다시 커다란 문을 밀고 가사원 밖으로 나왔다.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해가 내일 다시 솟아오르듯이 밤새 한숨 돌릴 재봉틀도 아침 해와 함께 부지런히 돌아갈 모양이다.

가사제작 문의 (02)3412-7867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불교의식(범음, 범패)교육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본원은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으며 영산재를 계승 및 발전 유지하고
후진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의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아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

수료 과정 및 강주

모집반		교육내용	강주	요일	시 간	모집조건	교육기간
초급반	기본이론 기초과정	기본사물, 기본예불 불공 및 시식	호산스님	목	오후2시~오후5시	모든 종단 승려	6개월
중급반	상주권공 I 기초과정	시련 / 대령 / 관욕 상단 / 시식 / 작법기초	혜령스님	목	오후2시~오후5시	초급반 이수자	6개월
상급반	상주권공 II 전문과정	상주권공재의식 전문과정 작법 고급과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금	오후2시~오후5시	중급반 이수자	1년 과정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모든 종단의 승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원의 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장
- 전형일정: 2020년 1월 ~ 3월 5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 1로 53 (금호동) 법 륜 사
- 입학문의: 법륜사 종무소 062-655-7444,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 (법진스님) 010-9606-3981
  교육원 교학처장 (명휴스님) 010-7941-0017

2020년 1월

사) 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부설 교육원

| 현불 논단 |

봄철 만행을 맞으며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대중 덕분 한 철 잘 살았습니다"
안거 마치면 서로 나누는 인사말
대중과 함께 산다는 것에 '감사'

산중에서 삶은 대중살이가 기본
도반과 탁마, 수행의 새로운 힘

해제 맞아 만행 나서는 대중들
걸음마다 깨달음의 꽃 피어나길

"대중 스님들 덕에 겨울 한 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거를 마칠 때면 함께 철을 지낸 스님들이 서로서로 나누는 인사말이다. 매 철을 마칠 때마다 나누는 말이라서 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인사말 같은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사만한 인사말이 없다.

대중에 산다는 것, 대중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그리고 법회와 포살 등 대중의 모임은 언제나 감사하고 감동적이다. "한 철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이 인사에는 정말 가슴 가득 철철 넘치는 감사와 고마움이 담겨있다. 감정을 잘 다스리려는 마음을 놓지 않지만 문득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이 차오르기도 한다.

산중의 수행인들은 이렇게 한 철, 한 철을 살아간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도반(道伴)'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다만 '함께 도를 닦는 벗' 일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공감하며, 서로 품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도반이다. 가족을 떠난 출가인이 가족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함께 살던 도반들과 헤어짐을 뒤로하면 각기 다른 산중의 선원과 공부처, 기도처 등에서 수행정진하던 도반들과의 만남이 다가온다. 은사 스님께 인사를 드리는 사형사제들의 모임이 있고, 강원이나 대학 등에서 함께 공부하던 동기, 동문 도반의 모임도 있고 출가도 인연이라 이런저런 다양한 인연으로 만난 도반들의 모임이 있다. 도반들의 만남을 탁마(琢磨)라고 한다. 돌을 쪼아서 모양을 만들고 갈고 다듬어서 완성하듯이 도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거칠고 투박한 한 성품을 쪼아서 가꾸고, 말과 행동을 다듬고 갈아주는 데는 도반만한 사람이 없다. 때로 아프고 쓰지만 도반의 탁마가 수행자의 삶을 새롭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산중 스님들의 삶은 대중살이와 독살이가 있다. 대중살이는 대중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다.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 4~5년의 기간은 거의 반드시 대중생활을 하게 되어있다. 옛 스님들은 "대중이 공부시켜 준다"고 하여 대중에 살아야 출가자의 품행과 위의가 반듯하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대중을 떠난 사람은 공부에서도 멀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초심 출가자의 경우 대중이 아닌 독살이로 시작할 경우 평생 '독살이'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하기도 하였다. 안으로도 당당하지 못하고 밖으로 대중의 단체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출가와 대중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일체와 같은 말이다. 대중에 사는 스님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독살이에 해당하는 생활을 한 스님들은 다소 위축되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공부는 각자 내면에서 쌓이고 익어가는 것이라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여럿이 모여 함께 예불하고, 밥 먹고, 마당 쓸고 하는 생활일 뿐인데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것은 대중이 주는 다양한 밝고 긍정적인 기운들 때문일 것이다.

대중에 살면서 또한 기다리는 것이 해제일이다. 석달의 꽉 짜인 대중생활을 지내며 여유와 자유를 꿈꾸게 된다. 경전의 말씀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자유롭고 고독한 혼자의 길을 기다리는 것이다.

경허 스님의 시처럼 '춘성무처불개화(春城無處不開花)', 봄이 오는 마을에 꽃피지 않는 곳 없듯이 대중에서는 산중대로 만행 길에서는 마을이든 들판이든 가는 곳곳마다 수행과 깨달음의 꽃이 피어 날 것이다. 만행에 나선 스님들의 싱그럽고 활기찬 에너지가 세상에 두루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원하는 것 해결해야 감동 준다

율장 대품에 이 같이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60명의 제자들에게 전법선언을 하고, 우루벨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우거진 숲속에서 앉아 쉬었다. 그때 부잣집 귀공자(貴公子)들이 숲속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을 동반하고 소풍을 왔다. 그런데 모두가 술에 진탕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한 기녀(妓女)가 재물과 보석을 털어 도망갔다. 잠에서 깬 귀공자들은 기녀를 찾아 숲 속을 헤매다가 단정하게 앉아 있는 부처님을 만났다.

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서 "세존이시여, 도망치는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라고 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자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자를 찾는 일이 중요한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한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자아(自我)를 찾는 문제는 종교나 철학, 인문학에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이다.

부처님은 절대자인 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는 신의론(神意論)을 부정하고,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공이 인간(중생)임을 주장하였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원인과 관계의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성된다는 인과법칙과 연기법칙을 주장하였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 사람의 귀천과 존재의 가치가 자기 자신의 행위(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술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버린 귀공자들의 이야기'는 초기 불교 교단사에서 중요한 전법 일화이다. 한 순간 술에 취해 방탕했지만 본래 총명한 청년들은 부처님을 만나 "여자를 찾는 일이 중하냐?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중하냐"의 한마디 설법을 듣고 단박에 전미개오(轉迷開悟)하여 회심(回心)하였다. 쾌락의 극단을 추구하는 중독증은 나 자신은 물론 사회를 파멸로 이끈다.

부처님은 시(게송)로 설법하였다.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랴. 세상은 쉼 없이 불타고 있는데 너희는 어둠속에 덮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느냐." (법구경)

그들은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의 성자로 새로 태어났다. 극단의 쾌락주의를 반성하고, 중도의 균형적인 삶의 길을 깨달았다.

법사는 설법할 때는 먼저 청법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과 어떤 성격의 법회인가를 알아서 청법 대중이 무슨 설법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거기에 '알맞는 주제'를 정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설법 즉, 대기설법(수기설법)을 해야 한다.

〈카네기 자기관리론〉에는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감동을 받는다"고 하였다. 엉뚱하게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강요하는 '육포(肉脯)설법'을 한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설법은 부처님 말씀인 '경전에 근거'하여 설해야 신뢰가 있고 권위가 선다. 시변잡기를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설법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게송이나 시를 낭송해주면 효과가 크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체가 없다(오온개공, 무아설)', '나의 본래마음인 자성을 찾으면 부처가 된다(견성성불)', '중생(인간, 나)이 부처다', '나의 괴로움을 없애는 지혜(사성제)' 등의 가르침이고, 거기에 따른 수많은 수행법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제2의 법정 스님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이 입적한지 10주기인 3월 11일이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스님의 유지를 잇는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와 근본도량인 길상사는 추모법회를 시작으로 사진전과 음악회, 좌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법정 스님이란 큰 어른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스님이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에도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우리들 사이에 방향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스님이 세상을 떠난 10년 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르침을 줄 만한 어른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불교계 존경하는 인물로 현재 생존해 있는 스님들이 한명도 꼽히지 않았다. 물론 인지도 등에 있어서 원효, 성철, 법정 스님 등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법정 스님과 같이 스스로의 수행을 바탕으로 하고, 또 현대문명에 날카로운 예각을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표현하는 인물이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불교가 위기라고 한다. 불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근본 원인을 돌아보면 포교와 전법의 약화로 인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믿고 따를 만한 어른이 불교계 내에 잘 보이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사회는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등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할 만한 우리 사회의 어른이 종교계에 있었다.

법정 스님의 10주기를 맞아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법정 스님과 같이 청빈한 삶을 통한 수행의 가치를 높이고, 현대문명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받는 많은 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살핌일 것이다.

진정한 보시행은 이들처럼…

2월 11일 동국대를 찾아 자신들이 평생 일군 재산인 아파트와 상가를 사후 유산으로 기부한 80대 노부부가 화제다. 이날 학교를 찾아 기부증서를 윤성이 동국대 총장에게 전달한 전병천(80) · 김정숙(81)씨 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님과 불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들의 보시가 감동을 주는 것은 진실한 불심(佛心)에서 비롯돼서다. 부부는 자신들의 보시행은 평소 스님이 하신 "회향을 깨끗하게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영덕사의 주지 선공 스님이 조계종에 사찰을 기증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리 살아야 겠다' 고 생각했고, 앞서 주석했던 혜원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복전(福田)을 일구는 보시는 사실상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싶었다"고 말하는 노부부에게서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한다. 이는 '내가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라'는 가르침이다.

실제, 조선 중기 선지식 서산 대사는 무주상보시를 위해서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손사래 치던 노부부는 보시행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 빈손으로 오고감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말고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노부부의 보시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0 행복이야기 UCC영상 공모전

공모주제 불교의 지혜, 자비, 정진을 이해 또는 설명하는 자유로운 영상
참가대상 초·중·고등학생, 대학생(개인 및 단체 참여가능)
일 정 응모기간 : 2020년 2월 17일 ~ 3월 20일까지
결과발표 및 시상 : 2020년 4월초경-개별통보 / 4월말 시상식
신청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참가신청서는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참가신청서에 참여자 개인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 필수
(#불교 #지혜자비정진 #불교문화확산UCC공모전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0행복이야기 UCC와 함께 업로드 후 참가신청서에 URL 작성)
제 출 : gby2010@naver.com(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일체를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영상파일명 : 이름(단체명)_영상제목_제출일
(예 : 홍길동_불교문화확산_20200201)
문 의 : (02)720-6618
출품규격 : ① 30초 이상 영상 ② 해상도 : 1280*720 이상(HD 해상도)
③ 출품작 : 1인(또는 단체)당 1작품 제출(출품료 없음)
④ 영상 파일 및 게시명 : 이름(단체명)_영상제목_제출일
(예 : 홍길동_불교문화확산_20200201)
⑤ 타 공모전에 출품한 적이 없는 작품



시상내역
* 대상 1인 or 1팀 100만원(상금 및 상패)
* 우수상(4인 또는 4팀) : 각 50만원(상금 및 상패)
* 장려상(4인 또는 4팀) : 각 30만원(상금 및 상장)
* 아차상 : 상품 및 상장

유의사항/기타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 귀속됨

주최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태고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BBS불교방송국, BTN불교TV,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2월 10일 (월) ~ 2월 27일 (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마일운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난 평생 ‘東國人’… 항상 동국에 남겠다”

법산 스님
(동국대 제40대 이사장)

지난해 6월 27일 이사장 선출
화합 · 배려로 이룬 ‘원팀-동국’
“구성원 모두가 가족이자 도반”

일산병원 증축에 결정적 역할
1천병상 확보로 의료 질 증대
상하이중의약大 교류 협정도

퇴임 후 금강경 10만독 매진
“동국대 홍보요원으로 살 것”



법산 스님은… 1945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5세에 남해 화방사에서 출가했다. 1967년 마산대학(현 경남대) 재학 당시 서경수 동국대 교수와 인연으로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했다. 학부 졸업 후 불교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에 매진했다. 1980년에는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 입학해 6년간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86년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조교수에 부임한 스님은 2010년 정년퇴임까지 25년간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스님은 13년간 정각원장을 지냈고, 불교대학장을 3번이나 역임했다.
학승으로서의 면모도 남달랐다.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인도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등 주요 불교학회의 학회장을 역임하며 한국불교학계를 이끌었다. 퇴임 후에는 동국대 명예교수로 활동했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를 맡아 학교 발전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7월부터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다.

대담=김주일 국장, 정리=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제 40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2월 17일 이사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법산 스님의 삶 속에서 ‘동국’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지분을 갖는다. 15세에 남해 화방사서 출가한 스님은 마산대학(현 영남대) 재학 당시 서경수 동국대 교수와의 인연으로 동국대에 입학해 수학했다. 이후 6년 간의 대만 유학 생활을 마친 스님은 1986년 동국대 선학과 조교수에 부임한 이래 2010년 정년퇴임까지 25년간 동국대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정년퇴임 후에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로 선임돼 학교 발전에 기여했고, 지난해 6월 27일 제40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평생 수행자이자 ‘동국인’으로 살아온 법산 스님을 퇴임을 앞둔 지난 2월 3일 동국대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임기 매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했다”는 법산 스님의 퇴임 소회부터 향후 계획까지를 들었다.

▲2월 17일로 이사 임기가 만료됩니다. 퇴임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기에 연연치 않고 일합니다. 처음 이사장을 하라고 권유할 때에도 ‘내가 이사장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결국 주위에서 “안한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해서 수락하고 제 40대 이사장에 선출됐죠.

이런 과정 때문인지 사실 퇴임 소감이라고 딱히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임기의 매 순간 순간이 소중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임기가 길고 짧은 것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동국대 동문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교수 시절 정각원장을 13년 맡았고 불교대학장을 세 번 했지만, 다른 보직은 추천이 와도 일체 맡지 않았어요. 모두가 제 일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수행자이자 학자, 교육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계종립 동국대의 건학이념을 학교 구성원들이게 잘 전하고 이를 통한 교육적 성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장 소임을 맡고 나서도 이런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동국대에 대한 애정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사장이 되고 보니 위치와 관점이 달라진 것은 있었지만, 기본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와 병원, 산하 학교 · 기관 등을 살폈고, 동국의 모든 구성원은 가족이자 도반이라는 마음으로 대했죠.

▲그래서인지 재직 중에 유독 구성원 간의 화합과 배려를 강조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일선에 당부한 것이 “업무는 분업화하되 정보는 공유하자”는 거였죠. 학교 행정이 커진 만큼 체계적인 분업화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업무를 분업화한다고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약해져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동국’은 ‘원팀(One Team)’이라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국의 구성원 중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손가락 5개 중 한 손가락 정도 필요 없어 보인다고 잘라내면 그 사람은 평생 불구가 됩니다. 우리는 인드라망을 구성하는 세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구성원 중 누군가가 뒤쳐진다면 부지런히 정진할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 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구성원도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과 배려이죠.

▲평소 승가 의료에 대해 관심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증축에도 큰 역할을 하셨던 데요.

-얼마 전 태국 치앙마이 대학을 방문했는데 의과대학 병원 운영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가병동이 따로 마련돼 아픈 스님들이 체계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군요. 좀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신교나 가톨릭의 경우 수십 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데 비해 불교계 종합병원은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일산과 경주의 동국대병원 단 두 곳뿐인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동국대에 의과대학이 생긴지 30년이 넘었지만, 동국대 의료원 산하에 3차 진료 병원이 없다는 것은 늘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난 제326차 이사회를 통해 일산불교병원 증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향후 250병상 규모의 건물이 증축되면 1,000병상 이상을 갖춘 일산 최대 규모이자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의 위상을 갖추게 됩니다. 1,000병상으로 확대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급성기 · 회복기 치료가 이뤄질 수 있고, 승가 의료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의료 연구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6일 중국 상하이중의약대학과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하이중의약대학은 한 · 양방 협진 체계가 잘 구축돼 있더군요. 동국대도 한방병원이 있는 만큼 양 · 한방 협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수 재직을 포함해 약 30년 이상을 동국대 구성원으로 살아오셨는데,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신지요?

-교수 재직 중 가장 보람됐던 것은 학생들과 친구 같이 생활했던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연기적인 관념으로 대했습니다. ‘학생이 있으니 교수가 있고, 교수가 있으니 학생이 있다’는 상호공존 관계라고 생각했죠. 교수가 갖고 있는 지식은 강의를 통해 전달하고 학생은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자신만의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좋은 파장은 만 가지 파장으로 확장됩니다.

▲ 〈금강경〉 10만독을 서원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5만독 성만 기념법회를 봉행하시기도 하셨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금강경〉 10만독 서원을 세운 것이 2001년입니다. 10만독이라는 것이 하루에 1독씩 한다면 무려 274년이 걸리더군요.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10독은 꼭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국대 모든 구성원이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 했으면 합니다. 〈금강경〉은 ‘비우고 비우면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비움의 철학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상 · 인상 · 중생상이라고 하는데 결국 아상을 내려놓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이뤄집니다. 하심 하다보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세상만사가 순리대로 흐르게 돼죠.

▲이사장직을 내려놓으시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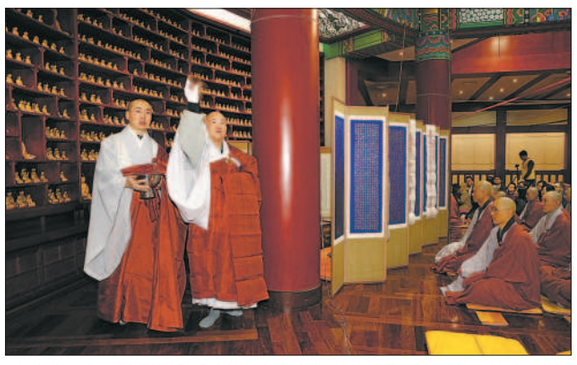
-지난해에 신생아가 2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19년 뒤에 대학에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60만 명인데 당장 20년 뒤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인원이 학령인구인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학령인구가 7만 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학제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이에 따른 교직원들의 효율적 배치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의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자’로 ‘동국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는 ‘동국’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찰서 법문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동국대를 홍보하는 ‘홍보요원’ 역할도 계속 할 것입니다. 동국의 발전이 곧 불교 발전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죠.

사진으로 본 법산 스님



지난해 12월 7일 정각원 원불봉안법회에서 의식을 하고 있는 법산 스님.



법산 스님이 지난해 9월 9일 혜광원 개원식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법산 스님이 1월 6일 상하이중의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5일 동국대 후원의 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법산 스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2/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2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7	10분 치유 명상 : 문화 치유 명상	송주 김응철	불교신문사
3	안녕 다람 살라	청전스님	운주사	8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유선경,홍창성	운주사
4	수좌적명 :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의 유고집	적명스님	불광출판사	9	석전 박한영 : 문사철의 석학 근대 지성의 멘토	임해봉	민족사
5	요가 디피카	B.K.S.이엥가/현천스님	선요가	10	무량수경 청화강기 : 서방정토 극락 성불학교 입학안내서	정공스님/허만항	비움과소통

책세상

“산과 들 널린 꽃 풀, 귀한 약차 된다”





선엽 스님의 힐링 약차
선엽 지음/마음서재 펴냄/1만 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힐링 약차

수제차 명인 82가지 약차 레시피 공개
“음식보단 약차로 병 고치기 더 쉬워”
몸에 맞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도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이 아닌, 그보다 간편하고 검증된 먹거리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는 커피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을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먹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수제차 명인 선엽 스님이 ‘힐링 약차’를 제안한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노화로 인한 질병,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미세먼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항상 노출돼있다. 절제된 생활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는 이들은 그때그때 유행 따라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곤 한다. 몸에 이로운 음식이나 약을 찾아 먹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간편하게, 또 검증된 먹거리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먹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선엽 스님은 ‘힐링 약차’를 제안한다. 선엽 스님은 출가 후 협심증과 신경계 질환 등을 앓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산속에 들어가 투병생활을 했는데, 그때 눈이 들어온 것이 산야초였다. 스님은 이 산야초를 재료로 갖가지 약차를 만들어 마셨다. 꾸준히 마시다보니 갖가지 병고가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약차의 치유 효과를 경험한 스님은 그 후 체질별 맞춤 차를 개발하는데 집중했다. 산야초에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복용했을 때 효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을 본격 연구했다. 그렇게 15년여를 약차와 함께하다보니 어느덧 200종이 넘는 힐링 약차를 개발하게 됐다.

처음에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약차를 나눠줬다. 꾸준히 마시고 효과를 봤다는 이들이 점점 늘었다. 이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지금은 차에 대해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 귀한 약차로 불리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차의 나라’ 중국에서도 힐링 약차의 진가를 알고 CCTV에 초청해 화제가 됐고, 미국에서도 약차를 이용한 디톡스 프로그램과 차 시연회 등을 선보이며 힐링 약차 돌풍을 일으켰다.

이 책은 힐링 약차를 개발한 선엽 스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망라해 처음 펴내는 책이다. 1부에서는 약차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약차가 우리 몸에 왜 좋은지, 약차를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선엽 스님이 개발한 약차들 가운데 특히 우리 몸에 좋은 82가지 약차의 특징과 효능을 소개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스님만의 약차 만들기 비법을 전격 공개한다.

각종 암과 질병은 대개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서 많이 발병한다. 약차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이다. 따뜻한 약차를 꾸준히 마시면 몸을 이완시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항생물질을 증가시키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며, 면역력을 끌어올린다. 또한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 염증을 완화하며, 차의 영양 성분이 몸속에 빠르게 흡수된다. 그래서 선엽 스님은 약차를 가리켜 ‘고농축 생명수’라 표현한다.

선엽 스님의 힐링 약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 만들기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가정에서 흔히 만들어 먹는 유자차나 모과차처럼 설탕에 버무려 만드는 차가 아니다. 대추차나 계피차처럼 오래도록 뭉근히 끓이는 방식도 아니다. 스님이 오랜 연구와 실험 끝에 찾아낸 이 방식은 덖기(살청), 비비기(유념),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약효는 최대한 끌어올리고 맛과 향을 좋게 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되니 간편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몸에 좋은 약차라고 해서 모두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차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데 몸에 맞지 않는 차를 마시다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예컨대 쓴맛이 나는 차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지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과음하면 좋지 않다. 선엽 스님은 식물들이 제각각 가진 성질이 다르고 사람의 체질이 다르므로 잘 가려서 마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82가지 약차를 효능별로 분류해 간의 해독을 돕는 약차, 심혈관이 튼튼해지는 약차,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약차, 호흡기 질환에 좋은 약차,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약차, 면역력을 길러주는 약차, 여성의 몸을 지켜주는 약차 등으로 묶어 소개한다. 블렌딩해서 마시면 약효가 배가 되는 차들은 마시는 법에 대해 따로 설명을 덧붙였고,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할 차들에 대한 정보도 수록했다.

책서 소개한 약차들은 먼저 재료를 구하기가 무척 쉽다. 식탁에도 자주 오르는 깻잎, 부추, 우엉, 연근, 무, 냉이, 표고버섯, 더덕, 수박 등이 약차의 재료가 된다. 과연 이걸로 차를 만들 수 있나 싶을 만큼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다. 목련, 개나리, 능소화, 달맞이꽃, 맨드라미, 연꽃, 찔레꽃, 들국화 등으로는 향기롭고 빛깔도 고운 꽃차를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잡초도 스님의 손길을 거치면 귀한 약차가 된다. 대표적인 것이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환삼덩굴차다. 산과 들에 지천으로 널린 거의 모든 식물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그래서 스님은 잡초가 아닌 ‘생명초’라 일컫는다.

힐링 약차는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다. 많은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내 몸에 맞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드니 무엇보다 내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선엽 스님은 재료 고유의 쓴맛과 거친 맛을 잡는 비법도 아낌없이 공개한다.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냥 먹기엔 거부감이 드는 여주나 어성초 등도 스님만의 비법 레시피를 곁들이면 맛이 순해진다. 스님이 설명하는 대로 따라 해보면 봄에는 잎차, 여름엔 꽃차, 가을엔 열매차, 겨울엔 뿌리차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방식으로 제철 약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본문에 사진을 풍부히 수록해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부록으로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5분 차명상법과 힐링 약차로 활력을 되찾은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를 실었다.

▲저자 **선엽 스님**은?

2003년 정읍 유선사 성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불학승가대학원, 유마사 선학대학원 등에서 공부했다. 다도 교육을 하며 차의 세계에 입문했고, 명원문화재단 사범 과정을 수료하고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체질별 맞춤 차를 개발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여 200종이 넘는 약차를 개발했다.

2014년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세계보이차대회에서 입상했고, 2017년에는 직접 개발한 약차와 한방차가 중국 CCTV에 웰빙식품으로 소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미국에서도 약차를 이용한 디톡스 프로그램, 차명상, 차 만들기 시연회 등을 선보이며 힐링 약차의 진가를 알렸다.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차와 명상’ ‘산야초 꽃약차 강의’를 진행했고,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강의와 명상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BTN라디오 ‘선엽스님의 약차 이야기’에 매주 출연해 약차를 소개한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에 티카페 ‘마음정원’을 열어 특별한 치유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고려사경서 온 2020사경

제4회 선경사경연구회전

갤러리 라메르 2월 19~25일



이윤용 作 '반야심경'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새로운 모습의 사경전이 열린다. 2020년에서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사경은 어떤 것일까. 우리 사경의 전통을 철저하게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사경을 모색하는 선광사경연구회(회장 배옥영)가 2월 19일(개막식 오후 4시)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라메르에서 네 번째 회원전 '선광사경연구회전' 을 개최한다.

주로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11명의 회원들이 3년여 동안 준비한 이번 전시에서는 경전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종교의 경계를 허물고, 서사재료에 있어서도 사경지에 국한하지 않고 한지와 비단, 돌 등 다양한 소재로 폭을 넓혔다. 또

다양성 위해 종교 경계 허물고
한지 · 비단 · 돌 등 재료 다양
불과 끌 등 다양한 서사 도구
한자 · 한글 서체 변용 새 문양

한 금니, 은니, 주사, 먹, 주목, 채색화물감 등과 불, 끌 등 다양한 서사 도구를 과감하게 수용했으며, 한자 서체와 한글 서체의 변용을 시도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변상도와 함께 새로운 문양의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사경의 전통을 확인하고 한국 사경을 확장시켰다.

경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사경은 신앙적 의미를 지닌 공덕경으로, 경전을 서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전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고, 수행자가 독송하고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서사의 공덕을 위한 것이다.

우리 전통 사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사경은 신앙적인 면이 강조된 장식경이 주류를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경을 감싸주는 겉표지그림에는 금 · 은니로 보상당초문을, 안표지 그림에는 경전의 내용을 쉽게 묘사한 변상도가 금니로 각각 그려져 있다. 사경의 형상은 권자본(卷子本 · 두루말이 형태의 책)과 절본(折本 · 접는 책)이 있는데 보통 절본이 많이 남아 있다. 종이는 짙은 감색 한지가 많이 쓰였으며,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금강경〉 〈부모은중경〉 등이 주로 서사됐다.

충렬왕 이후 원나라가 사경승과 경지를 요구했다는 여러 문헌과 비문의 기록에서 고려사경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도 우수한 고려사경의 전통을 이은 사경들이 많이 조성됐지만 초기 이후부터는 고려 전통을 이은 금자사경과 은자사경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방면으로 복원과 발전 과정에 있는 현대의 우리 사경에서 선광사경연구회의 쉼 없는 모색은 또 다른 전통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광사경연구회 회원들은 작품을 준비하는 내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성인의 말씀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글자 한 자 한 자에 일념을 담아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배옥영 회장은 "사경은 일반 서예와 달리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 오롯한 마음으로 성인의 말씀과 하나 되어 깊은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는 신심의 환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며 "새로운 시도는 늘 낯설음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번 전시는 우리 선광사경연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한 번의 걸음이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선광사경연구회의 이번 회원전은 서울 전시를 마치고 대전에서 이어진다. 2월 27일(개막식 오후 3시)부터 3월 4일까지 대전갤러리(대전평생학습관 내)에서 열린다.

선광사경연구회는 2006년, 전통사경기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경을 통해 삶의 정화를 실천하고자 원광사경연구회로 시작했다. 2008년에 갤러리 라메르에서 창립전을 개최했으며, 2011년에 두 번째 회원전을 열었다. 2015년 4월 12일 선광사경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17년에 세 번째 회원전을 개최했다. (02)730-5454.



정은혜 作, '피어오르다'

동물 얼굴에 인간 담다

전등사 공모선정 작가 전시회
정은혜 '우리 사이의 동물들'展
2월 15일~5월 15일 무설전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전시가 열린다.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무설전 서운갤러리에서 전시지원 공모 선정 작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2019년 선정된 작가 중 한경희 작가에 이어 이번엔 정은혜 작가의 '우리 사이의 동물들' 展이다.

전시는 도자로 구워낸 동물들의 살아있는 표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작품은 소, 닭, 돼지 등을 의인화해 다양한 표정들을 담고 있다. 작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에 대한 생각이다. 저마다 생김이 다르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삶을 타고난 인간과 동물의 모습을 예술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미학으로 바라본다.

작품의 소재로 쓰인 소, 닭, 돼지 등은 우리 인간의 삶과 너무나 가까운 생명들이다. 병아리를 업고 있는 어미 닭, 연꽃 위에 앉은 돼지, '너는 늙어봤냐'는 제목의 늙은 소 등 작가는 동물들의 얼굴에 인간의 표정을 담아내는 것으로 생명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동물도 우리처럼 울고 웃고 늙어가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또한 인류가 동물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를 묻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정은혜 작가의 작업은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보다 한걸음 더 앞서 있다. 인간의 오랜 반려동물인 개와 식용동물인 소, 돼지, 닭을 의인화해서 도자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해학과 유머로 재해석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공생의 관계임을 역설한다. 도자라는 형식을 통해 동물들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전등사는 2020년 청년작가 전시지원 공모사업을 15일간 진행했다. 총 67명의 작가들이 지원했으며 현재 심사중이다.

박재완 기자

VR과 AR로 만나는 석굴암

고궁博 '디지털문화유산 나눔방'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로 석굴암 등 우리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월 4일 국립고궁박물관 1층 카페 안에 '디지털문화유산 나눔방(이하 나눔방)' 을 개설했다.

세 구역으로 구성된 나눔방은 문화유산과 디지털기술이 만나는 신개념 체험 · 휴식 공간으로 VR과 AR 등 실감콘텐츠를 활용해 관객들이 직접 문화재를 체험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도록 꾸며졌다.

△문화유산을 3차원 입체(3D)로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Interactive media wall)과 △창덕궁을 디지털 기술로 담은 다면 미디어아트 영상체험구역, △수원화성과 고인돌 ·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주제로 만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구역이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 의 경우 벽면에 최신 기술로 제작한 창경궁 · 한국의 사찰 · 소쇄원 · 하회탈 · 프랙탈 아트 등 5편의 디지털 영상을 제공하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3차원 입체(3D) 영상으로 문화유산들을 체험할 수 있다. 비치해 놓은 디지털기기로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다.

다면 미디어아트 영상은 창덕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 면에 걸쳐 디지털 기술로 담았고, '가상현실 · 증강현실' 실감체험은 특수제작한 기술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와 별도로, 나눔방 안 서가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각종 국내여행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문화재 관련 전문서적과 어린이 역사책, 신간 문학도서 등 1000여 권의 책들을 비치해 음료를 마시고 안락하게 독서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2020 행복이야기 UCC영상 공모전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교수불자연합회는 2020 행복이야기 UCC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주제는 불교의 지혜, 자비, 정진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자유로운 영상이다. 참가대상은 초 · 중 · 고 · 대학생이며 개인 및 단체 모두 가능하며, 응모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합격자는 4월초 개별 통지하며, 4월말에 시상식을 개최한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이며 체출은 이메일 (gby2010@hanmail.net)로 하고, 양식은 (사)교수불자연합회에서 내려 받는다.

출품규격은 30초 이상 영상으로, 해상도는 1280×720(HD 해상도) 이상이다.

시상내역은 △대상 - 1인 또는 1팀 100만원(상금 및 상패) △우수상 - (4인 또는 4팀) 각 50만원(상금 및 상패) △장려상 (4인 또는 4팀) 각 30만원(상금 및 상장) △아차상 - 상품 및 상장이다. 문의 (02)720-6618.

박재완 기자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 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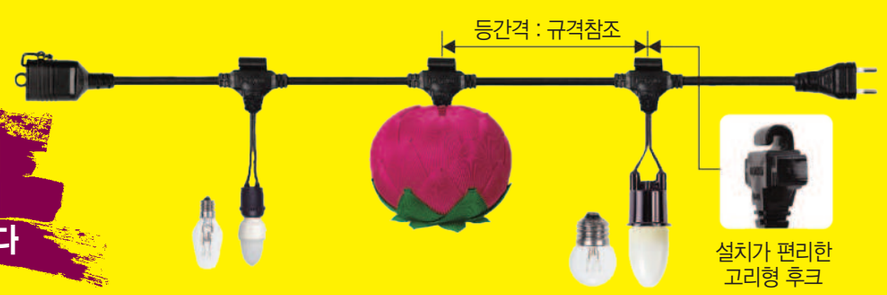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령, 관욕의식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사찰 연등 및 전선 전선간격 :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기분 따라 껴안는 '부처님 쿠션'

여래 · 명왕 5가지 조합으로… 2월 말 발매

자기 기분에 따라 껴안을 수 있는 다양한 부처님 쿠션이 탄생했다. 2월 3일 일본의 '시사통신' 'PR타임즈' 등은 새로 개발된 불교상품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3일 일본의 사찰문화상품 전문개발업체인 '페리시모 오테라부'는 '껴안는 부처님 쿠션'을 제작해 공개했다. 쿠션은 안과 밖을 뒤집어 두 가지 모습의 부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됐다.

시판되는 쿠션엔 각각 비로자나불, 아촉불, 보생불, 무량수불, 불공성취불의 다섯 부처님과 그 변화신(變化身)인 부동명왕, 항삼세명왕, 군다리명왕, 대위덕명왕, 금강야차명왕의 모습이 각각 그려졌다. 두 부처님이 한 쌍으로 총 5종으로 구성됐다.

쿠션에 그려진 그림들은 수제인형 제작으로 유명한 아마노 코유 스님의 작품으로, 코유 스님은 특유의 둥글고 천진한 모습으로 10가지 부처님을 그려냈다. 코유 스님은 "밀교에서는 중생들을 자비롭게 이끄는 여래의 모습과 중생의 악업을 단호히 쳐내고 번뇌를 제압하기 위한 분노한 명왕의 모습이 있다"고 각 그림을 설명했다.

스님은 사람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 여래와 명왕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



앞뒤로 바꾸어 껴안을 수 있는 부처님 쿠션. 사진출처=페리시모 공식블로그

고 말하면서 "부처님의 두 모습은 사람에게 있는 정(靜)과 동(動)의 양면에 모두 적합하다. 편안함과 치유를 원할 때엔 여래를, 활동적이고 극복하는 힘을 원할 땐 명왕"이라며 쿠션의 조합을 설명했다.

제작사인 페리시모 측은 "쿠션의 기획회의에서 '곁에 두어 번뜩하고, 안아서 위안이 되는 쿠션'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했다. 여래와 명왕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결과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사회에는 전통적인 불단을 모시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곁에 두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부처님이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라고 부처님 쿠션의 장점을 설명했다. 쿠션은 오는 2월 말부터 발매되며, 한정판으로 1인당 5개 1세트만을 판매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보시, 현금으로 낼 필요 있나요?"

日 사찰 불전함에 결제용 QR코드 설치

박영빈 객원기자

전자결제가 일상화되는 현대사회. 전자화폐로 보시금을 받는 일본사찰이 생겨 화제다. 2월 4일 '후쿠이신문' '야후뉴스' 등은 사찰 불전함에 전자화폐용 QR코드를 설치한 사찰 '쇼온지(照恩寺)'를 특별 보도했다.

일본 후쿠이(福井)현 후쿠이시에 소재한 쇼온지는 15세기에 창건된 고찰. 17대 주지인 아사쿠라 쿄센(朝倉行宣) 스님은 지난 1일부터 본당의 불전함에 결제용 QR코드를 설치했다. 참배객의 보시금을 전자화폐로 받기 위해서다. 쿄센 스님은 "불교도 시대에 대응하기를 요구받는다"며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평소 진행해온 '테크노 법회'의 영향으로 QR코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쿄센 스님은 출가 전 DJ와 조명기사로 일했던 실력을 살려 지난 2016년부터 법회와 테크노 음악을 융합한 '테크노 법회'를 진행, 국내외의 반향을 이끌어냈다. 2018년에는 싱어송라이터인 다른 스님과 함께 미니 앨범도 발표했다.

쿄센 스님은 "앨범CD를 사찰에서 판매하면서 처음 전자화폐를 도입했다. 손쉽게 결제가 되는 것을 보고 '보시에도 좋은 방법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스님은 곧장 다른 사찰이나 종교시설에서도 전자화폐를 사용하는지 조사했다.

15세기 창건 후쿠이시 쇼온지
시대변화 따라 전자화폐 도입
보시 부적합 비판여론 있지만
참배객들에겐 편리함 이끌어

그 결과 후쿠이현 내에는 없지만, 다른 도시나 현에서는 일부 도입한 사례를 찾았다. 스님은 "보통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찰이나 신사, 혹은 방범대책으로 전자화폐를 도입한 사례가 많았다"고 조사 내용을 밝혔다. 조사 당시 쇼온지가 재적한 정토진종에서도 "아직 후쿠이현 내 사찰가운데 전자



불전함에 놓인 결제용 QR코드를 소개하는 쿄센 스님. 사진출처=후쿠이신문

화폐를 보시금에 도입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말해 선진적인 방안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 일본 내 거대 불교단체인 '교토불교회'에서는 "불전이나 보시금 등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전이 신용거래로 오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교토불교회는 "불전과 보시를 신용거래로 받는 것은 보시의 원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했다.

교토불교회 이사장 아리마 라이테츠 스님은 "보시금은 영리사업의 수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단지 편리성만을 좇아 신용거래를 사용한다면, 신자와 사찰간의 가시적인 연계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쿄센 스님은 이에 대해 "현물을 보시물로 받아 사찰의 의식주를 지탱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다. 새로 등장한 화폐가 보시에 어울리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스님은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에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실제 쇼온지 신도들과 참배객 사이에선 QR코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찰을 참배한 중년의 신도는 "보시금으로 적당한 잔돈이나 내고 싶은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편리하다"며 부담 없이 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배객도 "단지 절을 보러 왔는데 QR코드가 있어서 가볍게 보시금을 낼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든다"고 했다.

"종정 추대 사양" 닝마파 종정 공석

후보자 모두 거절, 6대 본산 중심 운영 전망

티베트 불교의 주요 4대 종단 중 하나인 닝마(Nyingma)파의 종정이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됐다. 지난 2월 5일, 불교전문 인터넷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당초 추대된 스님들이 끝내 추대를 사양했다고 보도했다.

2월 3일 인도 바라나시에서 열린 국제 닝마파 위원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랜 숙고와 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닝마파의 종정을 공석으로 두게 됐다"고 공지했다.

닝마파는 지금까지 6대 본산의 방장들과 원로 출가자들의 협의로 종정을 추대, 3년간의 임기제로 선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에 종정에 착좌했던 '까톡 게체 린뽀체'가 그해 11월말 갑작스런 사고로 입적한 후 약 1년 넘게 종정이 공석으로 유지됐다.

3일 바라나시에서 열린 닝마파 총회에서 6대 본산의 방장들은 "까톡 게체 린뽀체께서 입적하신 직후 6대 본산 중 한곳인 족첸사원의 방장께 종정의 자리를 맡아주실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고사하셨다"고 밝혔다.

현지 티베트 소식통에 따르면 족첸사원의 방장스님은 "종정을 선출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닝마파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닝마파에서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종정을 선출하지 않고, 6대 본산이 연합한 형태로 종단을 유지해왔다.

한편 현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며 새롭게 추대된 '세첸 랍잠 린뽀체' 역시 종정 자리를 사양했다. 1967년생으로 원로승려들 중 젊은 피에 속하는 세첸 랍잠 린뽀체는 1980년대 초부터 네팔의 세첸사원을 이끌며 세계각지에 센터를 건립, 전법활동에 최선을 뛰는 고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추대된 2인의 후보자가 모두 종정을 사양하면서 국제 닝마파 위원회는 종정 없이 종단을 이끌어 나가자는 본산 방장들의 제안을 이행하는 데 동의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 물결'

방콕시내서 추모법회 열려
수천 명 인파 참석해 추모
보호경 독송… 가피 축원

2월 8일 태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위한 추모법회가 방콕에서 열렸다. 태국 북동부 나콘랏차시마시에서 탈영병이 벌인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 10일 'BBC' '로이터 통신' 등의 외신들은 총기난사 사건과 희생자 추모법회를 보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이 사건에서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57명이 부상당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망자에는 태국경찰과 군이 사살한 탈영병 짜끄라판 톰마가 포함됐다. 쁘라윳 총리는 이번 사건의 동기는 범인의 지휘관 친척이 연루된 주택 매매와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짜끄라판 톰마는 부대 지휘관등 3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무기와 탄약, 군용 차량을 훔쳐 불교사원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총을 쏴 왓



태국 나콘 라차시마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스님이 보호경을 독송한 물을 발우에 담아 대중에게 뿌리고 있다. 사진출처=로이터

파사타 루암 사원에서 경찰관 2명을 포함한 9명을 살해했다. 또 톰마는 상좌부불교의 명절인 '만불절' 연휴를 즐기는 쇼핑객들로 붐비는 대형 쇼핑몰 '터미널 21 코라트' 입구에서 총기 난사 후 진입했다. 범인은 17시간이 지난 9일 오전 9시경 쇼핑몰 안에서 군경에 사살됐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쇼핑몰에는 현지 한국인 선교사 자녀 2명과 그 지인 등 한국인 8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안내에 따라 무사히 탈출했다.

최초 사건 피해자인 왓 파사타 루암 사원의 아몬랏 스님은 "모두 만불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군용 차량이 사원 안으로 들어와 길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의 시야 안에 있는 누구든, 어떤 차량이든, 모두 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루앙 피클라 스님은 "총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사원 앞 도로를 쓸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탄 학생에게 총을 난사하는 군인을 봤다. 범인은 이미 죽은 학생의 머리에 수많은 총탄을 난사했다. 그리곤 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량의 타이어를 쏴 도주를 막았다"고 전했다.

방콕시내에서 열린 추모법회에는 수천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각기 손에 양초와 흰 꽃을 든 참석자들은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팔리어로 된 불경을 독송했다. 스님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이 마음속에 가진 자비를 잃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며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추모법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아무런 감정 없이,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희생됐다는 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예불과 법문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예불을 마친 스님들의 발아래에 초와 꽃을 공양 올리며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보호를 바라는 보호경(Paritta)을 독송하고, 물을 발우에 담아 참가자들에게 뿌리며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님 가피가 있기를 축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특수교육기관

보경사
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인모집

*개 강 2020년 3월 3일
*교육과정 불공의식, 재의식(각종시식, 영반, 시다림), 불전사물, 바라작법, 법음범패 등
*강 주 대광스님(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전수자)
*대 상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범종단스님, 재가불자
*구비서류 입학원서 / 승적증명서 / 반명함판사진 2매
*모집기간 2020년 2월 29일까지 (수시모집)
*입학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종무소 교무처
교학처 010-4530-7444
교무처 010-9370-3734
강주스님 010-4783-0077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제11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 6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범음, 범패 1년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개인지도,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무파사 불교대학원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사진 ……3매
→ 개강일시 : 2020년 3월 7일(토) 오후2시
→ 수 업 : 매주 토요일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주 소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
→ 신청문의 :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불교대학원(학장)

北조불련 · 템플스테이… 응용불교 논문 '눈길'

동국대 2020년 상반기 불교 박사 논문은

불교 관련 박사 11명 배출
북한 · 경영 인접학문도 나와
조불련 관련 '첫' 박사 논문
템플스테이 경영학적 접근도
대행선사상 연구 지속 현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2020년 상반기 박사학위자를 114명 배출했다. 이중 불교 관련 박사는 11명이다. 상반기 박사학위 논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전통 불교학이 아닌 인접학문인 북한학, 경영학에서 불교 연구를 통해 박사가 배출된 점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스님은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 종교단체 전반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조선불교도연맹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은 법타 스님이 최초다.

법타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 는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양상을 비롯해 조선불교도연맹 역사와 조직체계, 문중, 법계, 신도조직, 사찰, 주요인물 등 망라한 북한불교 종합 연구물이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태동은 1946년 12월 26일 북조선불교도총연맹(1972년에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로 개칭) 결성 당시 상무위원으로 사회주의 승려 대부분이 취임해 북한 불교계를 이끌면서부터다. 실제 한국전쟁 이전 사회주의 성향의 승려 56명이 월북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종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단체조직으로 국가와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조선불교도연맹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6국의 지도를 받으며, 또한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제6국에 속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업무 전체를 관장하며, 서기국에서 각 업무를 조율해 시행한다. 별도 기구로는 승려 대상 교육기관인 불교학원이 있고, 법계자격고시위원회가 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남한을 포함한 제3국과의 종교 교류와 북한 불교 정체성 유지, 사찰 관리 등이다.

법타 스님은 "이제 종교를 북한 사회의 한 부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불교도연맹의 조직과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남북한의 종교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북한 종교에 대한 연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스님은 동국대 경영학과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요인이 즐거움과 평안함, 그리고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불교나 관광학에서 학위논문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경영학에서 박사 연구가 이뤄진 것은 드문 사례다.

하원 스님은 참가자 간의 대인관계, 스님과의 관계, 일탈적 체험 등의 템플스테이 체험요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체험요인이 즐거움, 평안함 등의 감정과 재방문 의도 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체험경제이론과 서비스마케팅의 관점에서 규명했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템플스테이 체험요인 중 일탈적 체험이 즐거움과 평안함, 재방문 의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된 부분은 눈길을 끈다. 하원 스님은 "현대인들은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의 휴식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수행자의 일상과 불교문화, 전통문화 등의 일탈적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새롭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다"면서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재방문 의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일탈적 체험 여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템플스테이 운영주체는 즐거움이나 평안함, 동반유형, 연령, 사찰 위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타겟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의 선사상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상반기에도 나온 점도 눈길을 끈다. 김용환 씨는 '일심법의 관점에서 본 대행 선사상 연구' 로 동국대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용환 씨는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 속에 나타난 선리(禪理)를 규명하고 일심법의 관점에서 달마와 동산법문, 남종선과 북종선, 마조와 석두계의 선에 이르는 동아시아 선불교를 재조명했다. 나아가 저자는 대행선을 통해 일심법의 현대적 전개에 대해서도 살폈다.

김용환 씨는 "대행 선사가 말하는 둘 아닌 한마음은 무시무종의 일승공법으로 평등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불성임과 동시에 평등공법인 것"이라며 "이는 원효로부터 융합된 반야사상과 불성사상이 한마음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 선사의 주인공(主人空) 개념에 대해서는 "중국선불교의 핵심 개념인 주인공(主人公)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대행 선사는 전통적 의미의 주인공(主人公)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주인공(主人空)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것"이라며 "이는 원효가 말하는 일심의 대체대용을 '한마음' 의 체와 용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존 취약 '벽화문화재' 보존 · 관리 체계화

문화재청, 관련 규정 시행
사찰 벽화 5300여점 파악
보존 · 관리 사항 종합 규정
직접 개입 최소화 등 명시


보물 제1757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벽화.

그동안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 있던 사찰과 궁궐, 사원 등 건조물 벽화의 보존 ·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규정이 제정 · 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해 '벽화문화재 보존 ·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31호)' 을 제정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 궁궐 · 서원 · 향교 · 사당 등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찰 벽화가 5,351점, 궁궐 · 유교 벽화가 1,120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벽화문화재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 등 12건에 불과하며, 이 외의 벽화문화재는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벽화문화재가 목조 건조물 내 · 외부 토벽이나 판벽 위에 직접 그려져 건조물이 노후될 경우 손상되는 경우 많았다. 보수과정에서도 건조물의 부속품 정도로 인식돼 쉽게 분리되는 등 제대로 보존 · 관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 · 시행되는 '벽화문화재 보존 · 관리에 대한 규정' 은 벽화문화재에 대한 규정부터 보존 원칙, 관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실제, 총 4장으로 구성된 규정에는 보존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원 위치 보존 △직접적 개입 최소화 △재처리 가능한 보존 시행 △보존처리 시 본래 제작 기법의 우선 고려 △건조물 해체 시 설계단계부터 벽화문화재에 대한 영향 검토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존상태 상시점검(모니터링)을 비롯해 보존처리계획 수립, 보존 처리, 분리할 경우 재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극히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벽화문화재가 본래 위치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규정은 개별 벽화문화재의 보존 ·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벽화문화재 보존처리와 벽화문화재가 위치한 건조물 보수정비 사업의 근거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정이 현장에서 적용되면 지금까지 노후 건조물을 보수할 때 벽화문화재가 쉽게 분리 · 방치되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성민 기자

고령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된다

문화재청 첫 시행… 2월 21일까지 신청서 접수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랫동안 전승 현장에서 활동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그간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

신청조건은 △75세 이상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로 개인 · 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 · 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불교문화 강연회

3월 13일부터 12주간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안성두)이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특별강좌를 마련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에서 총 12회에 걸쳐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불교는 어떻게 아시아의 등불이 되었는가' 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각 분야 전문 학자들이 참여해 불교와 관련된 문학, 미술, 윤리, 명상, 사회참여, 신화 등과 관련된 강연을 펼친다. 주요 강사로는 이주형 서울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 김재성 능인대학원대 교수, 심재관 상지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회비는 없으며 3월 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02)762-5624 신성민 기자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④ 귀자모 도상

역병마저 교화한 부처님 위신력



해남 대흥사에 조성된 〈귀자모도〉 벽화. 〈잡보장경〉에 나온 부처님의 귀자모 교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도상화된 것이다.



중국 투르판 교하고성서 출토된 〈귀자모상〉. 9명의 아들과 귀자모가 함께 있다.



키질 석굴에서 조성된 〈귀자모실자연〉 벽화. 6~7세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병한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피해에 떨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인류는 이미 삼가다 3천 년 전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하거나 후유증에 시달렸다. 바이러스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력과 높은 치사율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전염병의 퇴치를 위해서 혹은 달래기 위해서 '역병의 신'을 만들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천연두(天然痘)는 두창(痘瘡) 혹은 마마(媽媽, smallpox)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서 아동이 감염될 경우 80%의 사망률을 가졌다. 아마도 천연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79년 박멸을 선언할 때까지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러한 천연두에 대한 공포가 만든 역병의 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자모(鬼子母)'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여러 종교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은 각 종교의 발달과 함께 구체적인 도상과 신격, 관련 경전 등을 갖추며 발전하여 왔다. 그 중에서 특히 불교는 불법의 수호 및 전파 과정에 여러 계층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앙의 대상이 필요했고, 이에 외래 종교 혹은 지역의 토속신이 불교의 여러 신들로 흡수 되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귀자모는 원래 인도 중북부 및 네팔지역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천연두를 일으키는 무서운 야차이었다.

귀자모는 하리티(Hārītī)의 의역으로서, 하리티의 뜻은 '생명을 가져가다' 혹은 '생명을 빼앗다'는 뜻이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천연두 하리티가 불교에 차용된 후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신으로 바뀌었고, 이후 한국과 중국, 일본에 전래되어 귀자모로 더 널리 알려졌다. 귀자모는 아리제모(訶梨帝母), 아리가(訶梨迦), 아리저(訶里底) 등으로도 표기되며, 이후 야차녀, 애자모(愛子母), 환희모(歡喜母), 구자모(九子母)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귀자모는 현존하는 유물들을 통해서 볼 때, 늦어도 기원 1~2세기에는 불교의 호법신이 되어 인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귀자모는 경전과 관련해서 보아도 초기의 빨리어 경전부터 대승경전 및 밀교경전에 이르기까지 약 20여종에 가까운 관련 경전을 가지고 있어, 불교에서 귀자모 신앙의 유행을 짐작할 수 있다.

불교에 차용되기 이전의 하리티는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흔히 접하는 자애가 넘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귀자모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기원전 3세기경 제작된 〈쿠베라와 하리티상〉의 하리티는 취하고 있는 자세나 얼굴의 묘사가 악귀의 모습에 가까워 불교에 차용되기 이전의 모습 혹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신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과도기적 모습일 것으로 여겨진다.

기원 후 간다라 지역에서 제작된 귀자모상은 아이들을 거느린 모자상과 남편인 판치카와 함께 아이들을 거느린 부부상의 두 가지 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모자상의 경우 입상 혹은 좌상의 귀자모가 젖먹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고 다른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귀자모의 주변에서 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부부상의 경우는 장신구와 보관을 착용한 귀자모가 그녀의 남편 판치카와 함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른 시기의 귀자모는 종종 그리스 티케 여신의 상징인 풍요의 뿔 코르누코피아를 들고 있으며, 서너 명의 아이들이 함께 묘사되어 있어 그리스·로마미술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인도의 중북부 아잔타 석굴 2굴에 조영된 〈귀자모상〉은 남편 판치키와 함께 석굴사원 안의 독립적인 공간에 다른 신상들보다 크게 조성되어 있어, 5세기 경 인도 중북부지역에서 불교신상으로서의 귀자모 신앙이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다.

귀자모상과 신앙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서역 즉, 오늘날 중국 신장성 위구르자치구로 전파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현존하는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서역남로에 위치하는 호탄(和田)지역의 단단윌릭 사원지에서 나무판과 사원벽에 그려진 몇 개의 귀자모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들은 대략 5-6세기에 평지에 조성된 사원의 벽면을 장식하였던 것으로서 단단윌릭 사원지 D Ⅱ, D XIII 북벽과 서벽, CD Ⅳ-Ⅴ, D X-Ⅷ 등에서 힌두의 다양한 신들과 함께 묘사된 귀자모를 확인할 수 있다.

치명적인 역병이었던 천연두
역병의 신 '귀자모'로 신격화

불교 전래되며 神衆으로 흡수
〈잡보장경〉 귀자모 일화 전해
경전 바탕으로 '귀자모도' 조성

또한 서역북로의 쿠차(庫車)지역 키질석굴에도 여러 장면의 귀자모관련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키질석굴 80굴과 34굴에 그려진 귀자모는 인연고사화의 주인공으로 표현되어 석굴사원의 천장에 마름모형태의 공간에 도해되어 있다(그림 2). 화면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한 귀자모와 부처님의 바루에 들어있는 막내아들 그리고 부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면은 귀자모가 불교에 교화된 결정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잡보장경(雜寶藏經)〉의 '귀자모실자연(鬼子母失子緣)'의 내용을 도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자(鬼子)의 어머니는 늙은 귀신의 왕 반사가(般闍迦)의 아내로서 1만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큰 역사의 힘이 있었다. 제일 작은 아들은 이름이 빈가라(嬪伽羅)였다. 귀자의 어머니는 흉악하고 요사하며 사나워 사람의 아이들을 잡아먹었으므로 사람들은 걱정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때 부처님께서는 그 아들 빈가라를 붙잡아 발우 밑에 숨겨 두었다.

〈중략〉귀자의 어머니는 아뢰었다. "만일 지금 제가 빈가라만 찾으면 다시는 세상 사람들의 아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곧 귀자의 어머니에게 발우 밑에 있는 빈가라를 보여 주셨다. 그는 신력을 다하였으나 들어낼 수가 없어 도로 부처님께 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지금 삼귀오계(三歸五戒)를 받고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네 아들을 돌려주리라."

귀자의 어머니는 부처님의 분부대로 삼귀오계를 받들어 가졌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들을 돌려주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부터 계율을 잘 받들어 가져라. 너는 가섭부처님 때 갈니왕(羯膩王)의 일곱째 딸로서 굳게 공덕을 지었지마는, 계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귀신의 형상을 받은 것이다."

독일 투르판 탐험대의 2차 조사 때 그륀베델이 교하고성(交河古城)에서 획득한 〈귀자모도〉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귀자모를 중심으로 좌우 각 네 명씩 상하로 배치된 총 아홉 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아홉 명의 아이들에 관한 내용은 관련 경전들의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귀자모와 아홉 명의 아이가 표현된 사례가 교하고성 출토 작품 이외에 성당시기 파중석굴(巴中石窟) 68감, 일부에서 성모마리아상이라고 칭하는 남송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구자모상〉 등 다수가 현존하고 있다.

귀자모와 9명의 아이들에 관해서는 〈한서(漢書)〉 권10 '성제기' 제10에 "…갑관재태자궁갑지, 주용유생야. 화당화구자모…(…甲觀在太子宮甲地, 主用乳生也. 畫堂畫九子母…)"라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 성제가 태자시절 세 살 나이에 어머니를 여위자 태자의 건강을 염려하며, '구자모' 그림을 태자궁에 그려 건강을 빌었다는 내용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이미 2세기경에 구자모라는 대상에게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었음을 알 수 있다.

귀자모의 기원에서부터 정리해 보면 천연두의 신 하리티가 간다라 지역에서 불교에 흡수되어 이전의 악귀의 모습을 버리고 아이를 보호하고 출산을 도와주는 귀자모가 되었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중의 일부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중국 전통의 多子사상이 만들어낸 구자모와 결합하여 9세기 투르판 교하고성 출토의 〈귀자모도〉,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12-13세기 경 제작의 〈귀자모상〉, 12세기 일본 다이도지(醍醐寺) 소장의 〈아리제모도(訶梨帝母圖)〉가 제작되었다고 본다.

햇볕이 좋은 해남에서 〈잡보장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긴 〈귀자모도〉를 보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리고 우리의 염려도 포용력 크고 넓으신 부처님께서 품어주시길 기도한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대원불교문화대학 신입생 모집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 2년 4학기

■ 모집학과

불교심리상담학과 (주간·야간 / 수·금요일)
불교심리학/발달심리학/명상심리학/진화심리학/마음챙김과 자기연민/
바디-마인드 심리치료/삶과 죽음의 심리 연구/마음챙김 명상과 심리치료/
심리검사 및 평가 /통합적 상담 방법론/철학적 인간학/마음챙김 명상과 행복/
성격심리학/집단상담 Ⅰ /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상담심리학/긍정심리학/
자아초월과 심리치료/상담면접기술 등

명상학과 (주간·야간 / 수·목요일)
불교명상학/명상과 치유/진화심리학/마음챙김과 자기연민/
사마타와 위빠사나 실습/불교와 마음치료/명상심리학/삶과 죽음의 심리연구/
뇌, 불교수행 그리고 인식/마음챙김 명상과 행복/철학적 인간학/
불교수행과 실습/비교명상의 이해/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
사마타와 위빠사나 실습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한 분
■ **강의시간** : · 주간 : 제1교시 14:00 ~ 15:30 / 제2교시 15:40 ~ 17:10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 업 료** : 300,000원(학기당)

대학원 | 2년 4학기

■ 모집학과

불교심리상담학과 (야간 / 수·목요일)
상담심리치료/정신병리학/진화심리학/마음챙김과 자기연민/
개인상담 실습 및 슈퍼비젼/뇌과학 과 심리치료/명상심리학/
삶과 죽음의 심리 연구/MBSR과 수용 전념치료 /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
마음챙김 명상과 행복/철학적 인간학/집단상담Ⅱ/부부 및 가족상담 /
유식심리학/철학과 심리/불교수행과 정신치료/상담과 철학 등

■ **입학자격** :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 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 **강의시간** : · 야간 : 제1교시 19:00 ~ 20:30 / 제2교시 20:40 ~ 22:10
■ **수 업 료** : 400,000원(학기당)

특 전
· **장학혜택** : 성적 우수자, 근로장학생 외
· **수업료 할인 혜택** : 스님, 가족동반(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해) 등록금의 50% 할인

원서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홈페이지 : www.kbpf.org
· 전화 : (02)707-1072 · 팩스 : (02)3273-1618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BBS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 **접수 및 전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 양식 다운로드)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교부 및 접수기간 : 2020년 3월 3일까지
· 개강 : 2020년 3월 4일(수)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 **오시는 길 및 문의**
·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다보빌딩(BBS)
· 문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전흥원
www.kbpf.org

▶ 불교심리상담학과 졸업 시 "불교심리상담사 1·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명상학과 졸업 시 "명상지도사 1·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증 입니다.

평등·자유 가치, 2500년 前 펼치다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④ 불교 사회계약론



그림 · 박구원

18세기의 사회계약론을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주장하셨다.

루소는 대단한 인물이었던가보다.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매일 산책을 했는데 너무나 규칙적이었다. 시계가 보편화되지 못했던 당시에 마을 사람들은 칸트의 산책에 맞추어 시간을 확인하고 업무를 보았다. 예를 들어 빵집 주인은 칸트가 지나갈 때 해야 할 일을 정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칸트가 산책 시간을 지키지 않고 늦게 나타나는 바람에 칸트에 맞춰 일을 하던 마을 사람에게 대혼란이 생겼다고 한다. 칸트는 왜 그날 늦게 산책을 했을까? 칸트는 그때 루소가 저술한 '에밀' 이라는 교육에 관한 책을 읽다가 책에 빠져 산책에 늦었다. 루소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쾨니히스버그 대학 교수였던 칸트에 비하면 루소의 이른바 스펙은 초라하다. 일단 정규 교육은 받아본적도 없고, 귀족이 아니었으니 가정교사를 통한 고급 사교육에 접할 기회도 없었다.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던 루소는 어느 귀족 과부의 후원을 받아 실컷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루소의 명저 중 하나인 '에밀' 과 '사회계약론' 은 당시에 불온서적으로 간주되어 소각 된 후에 금지되었고 루소는 온갖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루소는 고향인 스위스로 도망가지만 스위스에서도 정부에 쫓기고 심지어 시민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왕과 귀족의 권위를 부인하였지만 계몽주의 사상가를 비판하면서 루소는 사면초가가 된다. 게다가 자신을 후원했던 귀족 부인과 연인 관계가 되고, 나중에 여관의 하녀와 동거하면서 자식을 5명이나 낳았지만 모두 고아원에 맡겨 세상의 비난을 받았다. 노후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록' 이라는 책에 솔직하게 참회하였지만 수많은 적을 만들며 힘든 삶을 살았던 천재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루소의 사상은 인정 받았고 헤겔, 칸트 같은 대철학가들의 칭송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혁명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은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국민은 계약에 의해 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만약 정부가 인간 본연의 권리를 억압하면 인간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권리는 실정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연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18세기 유럽의 정치 상황에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고 프랑스 혁명이 루소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게 무리가 아니다.

부처님은 '장아함경' 에서 사유재산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세운다고 설하셨다. 루소도 '사회계약론' 에서 재산과 인간의 약함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세운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은 '장아함경' 에서 '이제 차라리 한 사람을 세워 주인으로 삼아' 라고 국민이 왕을 세운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장아함경' 에서 '우리들은 이제 곧 한 사람의 평등한 주인을 세워..' 라고 '평등한' 이라는 형용사를 '주인' 앞에서 수식하고 있다. 즉 우리가 주인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가 평등하기에 우리 위에 군림하는 군주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중국은 황제를 '천자' 즉 '하늘의 아들' 이라고 했다. 유럽에서 왕이란 신이 내린 직위였다. 교황이 대관식에서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왕이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동양에 퍼지게 된 것은 서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최근의 일이다. 유럽에서는 18세기에 계몽사상가에 의해 왕이 신이 내린 존재라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셨으니 얼마나 불교가 개혁적이고 가히 혁명적인 종교인지 알 수 있다.

서양은 동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으로 보이며 동양은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보인다. 언어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는 존칭이 복잡하지 않지만 우리말은 상당히 복잡하다. 일본어는 한 술 더 뜬다. 일본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든 점이 복잡한 존칭어라는 말도 있다.

서양보다 동양은 군주에게 훨씬 더 강한 권위와 권력을 부여한 것 같다. 일단 왕과 신하의 관계가 서양이 더 평등했다. 영국 귀족이 청나라 말에 중국 황제를 알현할 때 어떤 의례를 갖출 것인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조선 시대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이 중국 황제를 알현할 때는 엎드려 이마를 마루에 대고 3번 소리가 크게 나도록 부딪히고, 다시 일어나서 이 행위를 3번 되풀이하기 때문에 총 9번 이마를 마루에 꽝꽝 찍어야 했다. 오랑캐의 사신이라 이 정도를 요구했으며 청나라 황제의 신하는 이 정도의 예를 갖출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귀족이 보기에 청나라 신하가 청나라 황제에게 하는 예는 도를 넘는 굴욕적인 것이었다. 왕이라 할지라도 영국 귀족은 그런 예를 갖추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영국 귀족은 청나라 관리의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처럼 권위주의와 왕의 권한이 훨씬 더 강력했던 동양에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사회계약론을 주장하였으니 더욱 더 그 의미가 크다.

자연법상 권리인 사회계약론
부처님도 〈장아함경〉서 주장
자유 · 평등주의 근간한 불교

우리는 앞에서 정부가 왜 탄생했는가에 대한 불교적 설명을 보았다. 즉 장아함경에서 소유가 없던 시대에 토지의 경계를 정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함을 설명한다. 장아함경에서는 계속하여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재산을 보호하고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루소도 비슷하게 정부의 탄생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니 얼마나 흥미로운가? 인도와 유럽의 교류가 원활했다면 루소가 부처님을 베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의 넓이에 비해 인구가 희박하다면 인간은 구태여 네 땅, 내 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무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될 것이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옥한 땅은 줄어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필연적으로 내 땅을 확보하려고 하게 될 것이며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영국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엄청난 땅에 비해 인구가 작았던 초기에는 이민자에게 무조건 땅을 나누어 주었다. 나중에 들어온 이민자는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해야 했다. 먼저 땅을 점유한 자는 그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은 인간불평등의 시작이며 다툼의 시작이다. 루소가 '인간불평등 기원론' 이라는 저서에서 사유재산을 불평등의 시초로 보고 있다. 최근 인류학의 연구에서도 인간불평등의 기원이 과거의 토지 소유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인간 불평등에 관한 루소의 진단은 맞는 것 같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왕으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부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부처님 주위를 세바퀴 돈 뒤에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전에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우연히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코살라 왕이 카필라 왕국을 정벌하러 갈 때 부처님이 길에서 사실상 행진을 저지한다. 이렇게 두번이나 코살라의 출정을 저지하였으나 세번째에 이르러서는 부처님도 더 이상 저지하지 않고 막을 수 없는 인연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처럼 대단한 존경을 받았으니 부처님은 사실상 왕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루소는 신이 내린 권력이라는 절대왕정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불교와는 다른 논리를 동원한다. 부처님은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왕이 계약했다고 설하셨다. 루소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왕정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였다. 어쩌면 부처님은 강한 왕권이 등장하던 시기에 활동하셨지만 루소는 이미 신이 내린 권력으로 굳어버린 군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논리가 필요했을지 모른다.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장아함경은 세금의 발생에 대해 설명한다. 즉 각자 가진 쌀을 조금씩 내어서 평등한 주인에게 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알고 보면 우리의 돈을 가져다가 세금이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의 신체를 끌고 가서 군복무라고 이름 붙인다. 여러가지 법을 제정해서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심하면 감옥에 가둔다. 수십만년 전의 수렵채취 시대에 인간은 정부 없이 자유를 누렸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정부의 모든 강제적인 행위는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라고 보는 게 불교의 관점이고 루소의 관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강제적인 행위는 국민전체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세금은 정부의 권리가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위해 국민이 포기하는 대가이다. 왕이 군림하는 군주라면 정부의 행위는 은혜를 베푸는 행위이다. 왕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이라면 정부의 행위는 계약의 이행에 불과하다. 만약 대리인이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을 압박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는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선출할 수 있다. 왕은 대리인이고 국민이 주인이므로 불교의 정치관은 민주주의이며, 원래 우리는 자유로웠으나 사유재산으로 인한 다툼 해결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약할 뿐이므로 불교의 정치사상은 자유주의이다. 인도의 4계급을 부인하고 평등한 상가를 구성했던 불교의 정치사상은 평등주의이기도 하다.

〈고려대 명예교수〉

마이크와 1m 떨어져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가 되는 염불전문 마이크!

마이크 구입 전 테스트시 광고내용과 추호라도 성능이 다를시 누구 망신? 누구 손해?

제.전문시스템 : 법문용 유선마이크 1개, 염불용 무선마이크 〈헤드셋마이크 2개 동시사용 / 핀마이크 2개 동시사용〉 1세트

원톱시스템이란?! : 시설 전 초간단 견본으로 반드시 성능을 확인시 명산대찰 수억대의 소리보다 확실하게 월등함을 확인 후 시설 맡기면 가장 큰 절약이라는 뜻!

원톱시스템의 장점 : 1. 초간편시설 2. 앰프다루기 1초 3.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시설 명단제공

본사의 장점 : 전국사찰 염불시설 현황을 손바닥같이 보고 염불전문 시설만 20여년!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HITEC 하이텍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수행으로 고난 이긴 문인 禪者

〈선자〉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④ 송대 문인 황정견

"내 살이나 중생의 살이나, 이름은 같지만 몸뚱이는 다르지 않네. 본래 똑같은 목숨으로서, 단지 몸뚱이의 모습만이 다를 뿐이네. 괴로움은 남의 몫이라 하고, 달고 기름진 것은 내가 필요로 하네. 염라대왕 판결을 시비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 죄를 판가름 하면 어떨까?"

– 〈남심극락사중수방생지소(南潯極樂寺重修放生池疏)〉

위의 시는 송대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작품이다. 정견은 선자(禪者)이며, 문인으로서 선시를 많이 남겼다. 그의 시 속에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이 그대로 녹여 있다.

황정견이 살았던 송대로 들어서면, 승려들도 사대부화된 면이 있고, 유교의 사대부들 또한 선사와 같이 수행하거나 불교 경전에 심취해 선시를 쓰는 이들이 많았다. 이전 당대(唐代) 선사들은 오롯이 수행에만 전념했던 반면, 송대 선사들은 사대부 친구들과 어울려 시와 사(詞)를 짓거나 거문고를 연주하며 담백함과 소탈함을 즐기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 승려로서 예술적인 취향을 보인 승려를 보면, 비연(秘演) · 도잠(道潛) · 각범(覺範) · 각심(覺心) · 계소(繼紹) 등이다. 혜천(慧泉)은 수많은 책을 읽어 해박한 지식이 있어 당시 사대부들이 스님을 찾아와 묻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를 '천만권(千萬卷)'이라고 불렀다. 청순(淸順)은 당시 유명한 시인으로 "성품이 맑고 고요하여 사람들과 함부로 사귀지 않았으며, 특별한 일이 없이 도시에 나가지 않았는데, 사대부들이 직접 찾아와 만났고, 때로는 식량을 보내 주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중수(仲殊)는 소동파의 문인인데, 그의 시 가운데 '윤주북고루(潤州北固樓)'는 당시 사대부들이 노랫가락처럼 읊고 다녔다고 한다.

그 반대인 경우, 즉 사대부로서 승려들과 어울리며 선을 하고 선시를 남기는 이들이 많았다. 남송의 대학자 주희도 〈대혜어록〉을 즐겨 읽었는데, "현재 선학(禪學)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깊은 곳에 이르러 보지 못할 것이다. 깊은 곳에 도달하고 나면 반드시 선에 나아간다.〈주자어류〉"는 말을 남겼다. 송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선자로는 양억 · 장방평 · 이준욱 · 주돈이 · 소동파 · 구양수 · 정이 · 황정견 등이다.

그러면 황정견의 선시와 구도 정신을 보자. 황정견은 강서성(江西省) 홍주(洪州, 현 修水) 사람이다. 그는 시골의 학자 집안 출신으로 부친도 진사에 급제했으며, 도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해 주위 친척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 7세 때에 '목동시(牧童詩)'를 지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세속의 명리를 좇는 것을 견제할 정도였다. 어린 나이부터 탈속(脫俗)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본다. 정견은 22세에 진사 급제를 시작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정견은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며 요직을 두루 겸했다. 그러다 그가 편수관으로 있을 때,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탄핵을 받아 쓰촨성(四川省) 부릉(涪陵)으로 유배를 갔다. 이후 56세 무렵, 중앙에 기용되었으나 다시 유배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1105년 유배지에서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견은 문인으로서 한 경지에 이르러 소동파와 더불어 양대라 하여 '소황(蘇黃)'이라 불리었다. 정견은 소동파의 제자이면서 절친한 벗이었다. 소동파의 문장이 자유롭고 정적인데 비해 정견은 고전 성어를 자유로이 구사하여 두보의 계승자라 일컬었다. 정견은 호를 '산곡도인(山谷道人)'이라고 했는데, 선종사에서는 황산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수사와 꾸밈을 추구하고 깊이에 힘을 쏟아 '강서시파'의 조종(祖宗)으로 추대 받았다.

소동파와 함께 宋代 대표 문인
선종사에선 '황산곡'으로 불려
"언어로 현혹" 선사 꾸짖음에
"음욕 · 육식 · 음주 않겠다" 발원

정견은 "문장을 지을 때는 남을 뒤따르는 것을 가장 꺼려야 하며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시와 서법, 두 방면 모두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해서 '시서쌍절(詩書雙絶)'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면 정견의 구도를 보자.

정견은 회당 조심(晦堂祖心, 1025~1100) 선사를 찾아갔다. 정견이 선사에게 물었다. "불법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자네한테 하나도 숨기는 게 없네."

정견이 선사의 말에 사족을 붙여가며 풀이하려고 하자, 조심 선사가 말했다. "그게 아니네. 조금 있다가 자네에게 설명해주겠네."

잠시 후 선사는 정견에게 따라오라고 한 뒤 산길로 들어갔다. 한참을 걸은 뒤 멈춰 섰는데, 마침 물푸레나무 꽃이 만개해 향기가 계곡에 가득했다. 조심 선사가 정견에게 물었다. "물푸레나무 향기가 나지 않는가?"

"예, 납니다." "나는 자네한테 조금도 숨기는 게 없네." 그 순간, 정견은 도의 편재성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

–〈오등회원〉

곧, 선은 뜬구름 잡는 신통의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세계이다. 주무숙(周茂叔, 1017~1073)이 불인 요원선사에게 '도(道)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도 요원도 "눈앞에 보이는 푸른 산들이 제 모습 그대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한편 오도시도 소동파(1037~1101)는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라고 하였고, 도오겐(道元, 1200~1253)은 "눈은 옆으로, 코는 세로로 달려 있다(眼橫鼻直)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다.

정견에게 선의 스승으로는 조심이지만, 조심은 정견에게 글을 배웠다고 한다. 조심은 황룡파에 속하는데, 당시 황룡파는 사대부들과 왕래가 잦았다. 앞에서 언급한 소동파도 황룡파 동림 상총의 제자이다. 또한 정견은 사심 오신(死心悟新, 1043~1114) · 영원 유청(靈源惟淸, ?~1117) 선사와도 도반처럼 지내며 선을 배웠다. 황정견이 회당 조심의 법맥을 받아 법맥도에도 등장한다. 다음 정견의 선 세계를 알 수 있는 시를 보자.



"만리의 푸른 하늘에 구름이 일고 비가 온다. 인적 없는 텅 빈 산에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萬里靑天 雲起雨來 空山無人 水流華開)"

정견은 늘 하던 버릇대로 애정시(愛情詞)를 많이 지었다. 그러다 어느 날, 원통 법수(圓通法秀) 선사를 만났다. 법수 선사는 성품이 냉엄하고 직설적인 분이다. 선사가 정견을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대장부로서 어찌하여 좋은 글 솜씨를 겨우 이렇게 쓰는가?" 정견이 웃으며 말했다. "저까지 말 뱃속에 집어 넣으시려구요?"

–〈수월재지월록〉

정견이 이렇게 말을 한데는 사연이 있다. 말을 잘 그리는 이백시(李伯時)란 사람이 있었다. 법수 선사가 그에게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말을 주제로 그리다보면, 말 뱃속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라고 꾸짖은 일이 있었다. 이백시는 이후부터 관음보살상을 그렸다. 정견이 이를 염두에 두고, 선사의 힐난을 농담으로 받아친 것이다. 그러자 선사가 말했다.

"당신은 달콤한 언어로 세상 사람들을 음욕이 일어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말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요. 그대가 지옥에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그 말에 정견은 술을 끊고, 육식을 즐기지 않았으며, 여인들을 멀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발원문을 지었다.

"… 제가 이제 그 성품에 맞는 참된 말씀을 널리 찬양하고, 몸과 입과 뜻으로 헤아리고 관찰하면서 참회합니다. 저는 지난날 어리석음으로 인해 애욕을 품었고, 마시고 고기 먹으며 애욕의 갈증을 더했으며, 삿된 견해의 숲으로 들어가 해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마주해 발원을 세우고, 서원합니다.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음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 삼가 바라옵나니, 시방세계를 꿰뚫고 만 가지 덕으로 장엄하신 불보살님이여! 티끌처럼 수많은 세계에서 저를 위해 증명해 주소서. 만약 다음 생에 태어나 이 사실을 혹 잊어버리거든 부디 가피를 드리워 저의 미혹의 구름을 거두어 주소서. 허공 같은 법신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합니다."

정견은 발원문을 작성한 이래로 평생 자신의 발원을 저버리지 않고, 아침에 나물죽 한 그릇과 점심에 나물밥 한 그릇만 먹으면서 참선하였다. 정견이 정치적으로 역경에 처했지만, 선수행으로 가난과 고난을 즐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런 시를 보냈다.

"만사가 모두 한 가지 근본인데,/ 생각이 많으면 그것이 선의 병통이네./ 답답함 밀쳐내면 새 시가 떠오르고,/ 발자국 잊으면 토끼 다니는 길 드러나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니 진에(塵恚)와 환의 본성을 알겠네./ 몸 굽혀 그윽한 향기 맡으니,/ 마음이 저녁 경치와 함께 고요하네."

–〈차운답빈노병기독유동원〉 二首之一

정견은 이런 시를 벗에게 보내며, 자총(自聰, 임제종 승려)과 해회 연이(海會演二) 선사에게 귀의할 것을 권하면서 "깊이 선열을 구하고, 생사의 근원처를 모두 보게 되면, 근심 · 음욕 · 분노 등이 마음에 발붙일 곳이 없으며, 병에 근본이 없거늘 어찌 그 지옥이 해를 끼칠 것인가"라고 하였다. 또 친구에게 답한 편지에 '백가지 병이 다 내 안에서 나오니, 깨닫고 보면 본래 누가 앓았던가'라는 내용을 보냈다. 이와 같이 정견은 사대부 출신이지만, 문필가로서 그의 글은 선사상에 영향을 받아 후대까지 불자로서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제14기 – 수강생 모집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2020년 양력 3월 6일 금요일부터 새학기를 새롭게 수업을 개강합니다.
수업형식 첫 입회비 20만원, 수료1년과정, 무료특강 (2년코스)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시작 ~ 오후 4시까지
교육내용 ▪ 아침예불/종성.도량석 ▪ 사물다루는법 중점(목탁, 요령, 북, 태징)
▪ 작법종류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명발)
교육시간표 매주 금요일 ※수업은 시간강사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천도재] 법원스님	오후 1시	[교양과목 호적] 시우스님
오전 10시	[천도재] 법원스님	오후 1시	[매화역수] 도연스님
오전 11시	[바라춤]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 명발	오후 2시	[매화역수] 도연스님
		오후 3시	[북 타법] 원기스님
		오후 4시	[타로] 홍주 강사님

수업준비물 필기도구, 보이스레코더는 필수, 바라
교육문의 사무총장 원기스님 010-5306-0856
교육장소 주 소 : 경기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일죽면 고은리) 봉운사
전화번호 : 031-674-6397
오시는길 : (카카오맵) http://kko.to/Bh3yjBIj0
중요 행사문의 - 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회 장 도연스님 010-8249-1359 부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송운스님 010-8828-0108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 주 법원스님 010-5310-6831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 kr./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연 합장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君臣 신의 상징한 하사품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④ 왕의 권위 '茶 하사'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소장한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績略錄)〉. 고려시대 사찰의 차 공급 체계를 알 수 있는 사료다. **사진제공=통도사 성보박물관**

〈삼국유사〉 '감통(感通)' 에 경덕왕 19년(760), 왕은 월명 스님에게 품다일습(品茶一襲)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품다일습' 은 차를 끓일 때 필요한 다구(茶具)를 말한다. 8세기의 차 문화는 아직 귀족사회에 안착하지 못한 채 당나라의 음다(飮茶) 형태를 답습하는데 그쳤다. 그러기에 월명 스님이 왕에게 받았던 다구일습이란 당제(唐製) 다구일 것이라 여겨진다.

8세기 무렵 중국의 차 문화는 육우가 제다법과 탕법을 획기적으로 개량하여 이에 따른 다구가 출현했던 시기다. 그의 〈다경〉에는 차를 끓일 때 소용되는 여러 가지 다구들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풍로, 복(鍑), 연(碾), 소금 담는 그릇, 숙우, 완, 표주박, 솥, 체 등이 그것이다.

760년경은 육우가 저산에 머물며 차 연구에 매진하던 시기인데, 저산에서 수행하던 선종 승려 교연에게 영향을 받았기에 차 문화를 집대성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육우는 교연과 차를 품평하며 더욱더 깊은 차의 심연을 터득해 나갔는데, 이는 교연의 '구일 육우와 차를 마시며(九日與陸處士羽飮茶)' 에 나타난다. 그 내용은 이렇다.

9일, 산승의 암자엔(九日山僧院) 동쪽 울타리에 노란 국화, 활짝 피었네(東籬菊也黃). 속인들은 흔히 (국화를) 술에 띄우지만(俗人多泛酒) 누가(국화 향을) 빌려다가 차향을 더할까(誰借助茶香).

교연에 따르면 천지에 양기가 가득한 중양절(3월 3일, 9월 9일), 특히 황국이 피는 9일에 육우를 불러 차를 즐겼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가 주석하던 묘희사에 국화를 심었고, 노란 국화가 만개할 때 뜻 맞는 벗을 불러 차를 즐겼던 정황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국화를 띄운 술을 마시며 승경을 만끽했던 당시의 풍습도 나타냈다. 동쪽 울타리에 황국(黃菊)을 심고 즐기는 풍습은 동진(東晋) 때 도연명(陶淵明, 365~427)에게서 유래된 것인데, 이는 이상적인 선비의 삶으로 동경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차 문화는 7세기에 중국에서 들어와, 9세기에 이르러 왕실과 귀족층, 수행승 등으로 퍼져 나갔다. 〈삼국사기〉에 "(흥덕왕) 3년(828) 겨울, 12월… 차는 선덕왕(재위 780~785)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부터 성행하였다(茶自善德王有之 至於此盛焉)"는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차 문화 유입 초기, 차는 귀중한 물품으로 인식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공양물로 쓰였으며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품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나라에 공 있는 신하에게 차를 하사하여 군신간의 신의를 결속했으며, 80세 이상 노인에게도 차를 하사하여 원로와 노인을 우대하고 보호한다는 통치 윤리를 반영하는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고려 건국 이후, 왕이 차를 하사하는 범위가 넓어져 제도적인 규범이 만들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왕이 하사한 차의 종류도 다양해졌는데, 이는 고려에서 생산된 차와 송 황실에서 보낸 용봉단이 차등에 따라 하사되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에서 차가 하사된 사례는 〈고려사〉, 〈고려절요〉에서 확인된다.

특히 〈고려사〉 성종(成宗) 조에 "9년 겨울 10월 갑자에 서도(西都)를 행차하여 교를 내렸다(9年冬十月敎曰)"하고 이어 "(벼슬이)3품 이상인 자는 차 10각, 9품 이상은 차 5각(三品以上者 茶十角, 九品以上 茶五角)"을 내렸고, 또 "어머니와 처의 나이가 80살인 사람, 삼품 이상은 차 2근, 5품 이상 차 1근을 하사했고, 9품 이상은 차 2각을 내렸다(母妻年八十者三品以上茶二斤 五品以上茶一斤 九品以上茶二角)"고 한 기록이 보인다.

성종 9년은 990년이다. 당시 고려의 차 문화는 왕실 귀족과 수행승, 관료 문인들에게 어느 정도 퍼져 있었지만, 차를 넉넉하게 즐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에서 생산된 차는 재배 환경의 제한으로 중국처럼 차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풍족하게 차를 향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9세기 초, 차 씨를 들여와 자급자족을 시도했는데, 이를 뒷받침한 정보와 기술력을 선취한 계층이 도당구법승이다. 따라서 10세기에 하사된 차는 고려에서 생산된 것이라 하겠다.

功 있는 신하 · 80세 노인에
차 하사하며 왕권 공고히 해
차 공급 승려 · 사원 도맡아
점차 고급스런 차품 생산돼

10세기에 하사한 차의 무게는 각(角)과 근(斤)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각은 덩이 차(餠茶)의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이고 근은 잎차의 무게 단위이다. 9세기 일본 승려 엔인(圓仁)의 구법순례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신라 통역관 유언신이 세차 10근과 잣을 보내 주었고(劉信言 細茶十斤 松脯贈來)"라는 내용이 보인다. 세차는 여린 잎으로 만든 차인데 차의 무게를 근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각은 병차를, 잎차는 근으로 무게 단위를 표시했다는 용례를 규명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차의 무게는 각과 근을 섞어 사용하였다.

10세기에 유행했던 차의 종류는 무엇일까. 바로 병차(餠茶, 일명 떡차)였다. 그 제다법은 육우가 창안한 것으로, 10세기까지도 그의 영향권에 있었다. 병차의 제다 공정을 살펴보면, 찻잎을 시루에 넣어 증기로 쪄낸다. 찐 찻잎을 절구에서 찧어낸 다음, 틀에 넣어 차의 모양을 성형한다. 방형(方形), 원형(圓形), 화형(花形) 등 차를 만들어 건조해 보관한다. 차 끓일 때, 약한 불에 차를 구워 연(碾)에 갈아낸 후, 가루차를 끓인다.

고려 왕실 차 수요를 공급하던 곳은 다촌(茶村), 다소(茶所)이다. 특히 다소는 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특화된 전문 인력이 차를 만들던 공소(公所)이다. 다소는 차에 밝은 승려들이 주도했을 것이며 점차 차산지에 다세(茶稅)가 부과되면서 관청이 다소의 관리뿐 아니라 차를 출입(出入)을 관리했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전라도, 경상도 일원에서 차를 토공(土貢)으로 올렸던 사실을 수록해 두었다. 그러므로 차산지에 부가된 차세(茶稅)는 이미 고려 때부터 시행하던 제도가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촌의 형성 초기엔 차를 만드는 공소(公所)가 사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음은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績略錄)〉에서 확인된다. 이 자료에 다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쪽 동을산 다촌은 곧 차를 만들어 절에 올리던 곳이다. 차를 만들어 올리던 곳에는 차 밭과 샘물이 있었다. 지금에도 오히려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후인이 차를 만들던 마을이라고 하였다.(北冬乙山茶村乃造茶 貢寺之所也 貢寺茶田茶泉 至今猶存不泯 後人以爲茶所村也)

이 문헌에 따르면, 통도사 북쪽에 동을산이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다촌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폐사지에는 차밭과 샘물이 보존되고 있었다. 물은 차를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통도사박물관 소장본인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績略錄)〉은 1642년에 필사한 것으로, 고려시대 통도사의 토지 경제 및 비보(裨補)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17세기까지 통도사에 고려시대 다촌(茶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늠할 자료인데, 고려시대 사찰에서는 사원에 필요한 차를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체계가 전문화된 다소(茶所)를 운영하여 고려시대 차 문화를 사원과 승려들이 주도했던 배경을 밝힌 사료라 하겠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차를 왕의 하사품으로 활용한 사례는 특별할 뿐 아니라 차 이외에도 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 다포(茶布)를 차등을 두어 하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고려사〉 '현종 조' 에 "현종 9년(1018) 2월 무진에 해노 이군 교위선두 이하에게 다포를 차등을 두어 하사했다(顯宗九年 二月戊辰 賜海弩二軍 校尉船頭以下 茶布有差)"는 것이 그것이다.

다포(茶布)는 찻그릇을 덮는 데 쓰는 물품이거나 혹은 찻그릇을 닦을 때 쓰는 베로 만든 다건(茶乾)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11세기 왕실에서는 높은 관리에게 뇌원차(腦原茶)를 하사하였는데 뇌원차는 이 시기에 생산된 최고급차 단차(團茶)이다. 단차는 병차보다 그 제다법이 훨씬 정밀하다. 찻잎도 응조(鷹爪), 죽순처럼 여리고 여린 차싹으로 만드는 것인데, 10세기 말 대용봉단(大龍鳳團)을 만든 후 11세기 채양(蔡襄)에 의해 소용봉단(小龍鳳團)이 완성되면서 연고차(硏膏茶)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러므로 송과 교류가 왕성했던 고려에서도 뇌원차를 생산하여 하사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최승로 같은 신하가 죽었을 때 여러 가지 부의품을 보내면서 특별히 뇌원차 200각과 대차 10근을 하사했다. 이는 〈고려사〉 '제신상(諸臣喪)' 조에 "성종 6년(987) 3월에 내사령 최지몽이 죽자 왕이 부음을 듣고 애도했으며 차 200각을 보냈고, 8년(989) 5월 수지중 최승로가 죽자 왕이 애도하는 교지를 내려 그 공훈을 포상했는데, 뇌원차 200각 대차 10근을 하사했다. 14년(995) 4월, 평장사 최양이 죽자 뇌원차 1,000각을 보냈고, 목종 원년(998) 7월 내사령 서희가 죽자 뇌원차 200각, 대차 10근을 보냈고, 7년(1005) 6월 시중 한언공이 죽자 차 200각을 하사했다"고 하였다.

11세기에 고려가 구현했던 차는 중국의 모방에서 벗어나 고려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찻잎으로, 고려인의 이상을 담아낸 차로 발전 시켜 뇌원차, 대차 같은 차품을 완성했다. 아울러 차의 긍정적인 응용도 공이 있는 신하나 원로를 대접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사하여 이들의 공을 위로하는 한편, 나라를 위해 노력해준 신하의 마지막 길에도 차를 하사하여 귀하게 대접했다. 이렇듯 차는 군신(君臣)의 신의를 상징했던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차가 함의하고 있는 가치는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했던 시대라 하겠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화'가 되는 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⑦ 칼날 위의 일(劍刃上事)

임제가 법좌에 오르니 어느 스님이 물었다.

"칼날 위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화가 되는 일이지, 화가 되는 일이라네."

스님이 머뭇거리니 임제가 바로 때렸다.

'칼날 위의 일'을 물었다. '칼날 위의 일'이란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다.

취모검(吹毛劍)이란 말이 있듯이 예리한 칼날이 토끼털 같은 털에 닿으면 털이 싹둑 끊어질 정도로 날카로워 일체 번뇌를 다 잘라버린 무념ㄴ무상(無念無想)의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량분별(思量分別)이 떠나간 경지로 식심(識心)이 끊어진 것을 말한다. 이걸 물었더니 화 되는 일이라고 거듭 말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섭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란 말이다. 칼날이 너무 예리하니까. 머뭇거리자 또 한 대 때린다. 할을 했다가 때렸다가 임제는 법을 이렇게 보여준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저 '석실행자'가 방아를 찧다 발 움직이는 것을 잊어먹었다 하는데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깊은 샘에 빠졌느니라."

'석실행자'의 이야기가 나왔다. 청원행사(靑原行思 · ?~741)의 3세손에 석실선도(石室善道)가 있었는데 이 스님을 석실행자라 불렀다. 목평(木平)이라고도 하는데 생몰연대가 밝혀지지 않았다. 당나라 무종(武宗)때 회창사태가 일어나 불교를 폐하려고 할 적에 난을 피하여 속복을 입고 돌방아간에서 방아 찧는 일을 했으므로 목평을 석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때 석실이 방아를 찧다 선정에 들어 발 놀리는 것을 잊어먹었다는 설화를 두고 발 옮기는 것을 잊어먹은 뒤엔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답이 깊은 샘에 빠져버렸다 한다. 깊은 샘에 빠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샘에 빠져 죽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깊은 무아지경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잘된 일일 텐데 임제는 이를 긍정하여 말한 것 같지도 않다.

임제가 말했다.

"다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모두 그들이 오는 곳을 알아차리느니라. 만약 이렇게 오면(쉽게 오면) 실각하게(자격 잃게) 되고 이렇게 오지 않으면(어렵게 오면) 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는 격이니 언제나 함부로 짐작하지 말라. 알든 알지 못하든 모두가 그르쳤다. 분명히 이렇게 말해서 천하 사람의 폄박(貶剝=평판)에 맡겨 두노라. 오랫동안 서 있느라 수고했구먼."

임제가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철저히 관찰한다는 말이다.

말을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하는 사람이나 도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자기 견해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알거나 모르거나 말에서 알려하는 자기 입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말 이전의 말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말 이전에 눈썹이 먼저 말한다(聲前眉語傳)'는 말도 있다. 또 눈이 마주치는 데 도(道)가 있다(目擊而道存)는 말도 있다.

〈조계종 고시원장〉

보리 자량 십바라밀

〈菩提〉



세상 속 경전읽기

⑦ 선혜(善慧)의 바라밀 수행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의 '본생담' 서론에 해당하는 〈니다나카타(Nidāna-kathā, 因緣譚)〉 중 '먼 인연담'에서, 연등불의 수기를 받은 선혜(善慧) 보살은 붓다가 되기 위한 기본법을 두루 찾다가, 옛 보살들이 제일 먼저 행한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현자 수메다(선혜)여! 만일 보리(菩提)를 얻고 싶으면, 첫째로 보시바라밀을 완성하라. 마치 물이 가득한 물병을 넘어뜨렸을 때 한 방울 물도 남기지 않고 다 쏟듯이, 누가 네게 와서 무엇을 구하거든 그의 귀천(貴賤)을 따지지 말고 남김없이 보시하되 저 넘어진 물병처럼 하라. 모두 보시한 뒤에 보리수 아래에 앉으면, 반드시 붓다가 될 것이다."

선혜는 붓다가 되는 기본법이 1)보시(布施-재물과 진리를 베풀고 안심시킴) 바라밀만이 아닐 것이라 여기고 계속 모색하다가 2)지계(持戒-계율을 지킴), 3)출리(出離-번뇌의 속박을 떠남), 4)지혜(智慧-무명을 떠나 실상을 깨달음), 5)정진(精進-게으름 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감), 6)인욕(忍辱-찬탄과 멸시를 견딤), 7)진실(眞實-진리로부터 이탈하지 않음), 8)결정(決定-흔들리지 않음), 9)자(慈-멀고 가까운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품), 10)사(捨-고락에 평등한 마음)바라밀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10바라밀은 외부의 사방사유상하(四方四維上下)의 열 방향 어디에도 없고, 오직 마음속에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심천(深淺)에 따른 세 가지 10바라밀이 있으니, 보통 바라밀, 근소(僅少) 바라밀, 최상(最上) 바라밀이 그것이다.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은 보통 바라밀이고, 소유물인 재물로 하는 것은 근소바라밀이며, 생명을 바쳐 하는 것은 최상 바라밀이다.

선혜의 이러한 사유가 궁극에 이르자, 대지가 진동하여 람마바티(희락성)의 주민들은 서 있을 수 없어 기절하여 넘어졌다. 도공들이 만든 모든 그릇도 넘어지며 서로 부딪쳐 산산조각이 났다. 주민들이 두려워하며 연등불전에 나아가, 대지가 진동하는 연유를 묻자, 연등불께서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이 대지의 진동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오는 세상에 붓다가 될 것이다'고 예언한 젊은이 선혜가 옛 선인들의 길을 따라 보리를 깨닫는 10바라밀을 남김없이 생각하자 그 때문에 이 땅과 십천(十千)의 인천(人天) 세계가 흔들리는 것이다."

주민들은 연등불의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선혜에게 가서 꽃과 향을 올리며 예배하였고, 천인(天人)들도 꽃과 향을 올리며 "빨리 열 가지 바라밀을 완성하여 최상의 보리를 증득하시라"고 찬탄하였다. 이에 선혜는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열 가지 바라밀을 행해 이루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후 1)연등불이 무여열반에 드시자, 2)콘다냐붓다(Koṇḍaññā, 憍陳如佛),.....19)비파씨붓다(Vipassī, 毘婆尸佛), 20)시키붓다(Sikhī, 尸棄佛), 21)베싸부붓다(Vessabhū, 毘舍浮佛), 22)카쿠산다붓다(Kakusandha, 拘留孫佛), 23),코나가마나붓다(Koṇāgamana, 拘那含牟尼佛), 24)카샤파붓다(Kassapa, 迦葉佛) 등 24분의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셨다.

선혜는 전생(轉生)을 거듭하면서 이들 24붓다 아래에서 서원을 세우고 수기를 받고, 4아승지 10만겁 동안 보리(菩提)를 이루는 자량(資糧)인 10바라밀을 닦아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일생보처 보살로 도솔천을 거쳐 카필라성에 태어나고 25번째 고따마붓다(Gotama, 瞿曇)가 된 것이다.

이상에서 소승의 팔리 경장에서도 10바라밀이 붓다가 되는 보리자량(菩提資糧)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10바라밀 중 1)보시(布施바라밀, 2)지계(持戒)바라밀, 4)지혜(智慧)바라밀, 5)정진(精進)바라밀, 6)인욕(忍辱)바라밀의 다섯 가지는 대승의 6바라밀에서 선정(禪定)바라밀만 빠진 것이다. 그리고 3)출리(出離)바라밀, 7)진실(眞實)바라밀, 8)결정(決定)바라밀, 9)자(慈)바라밀, 10)사(捨)바라밀의 다섯 가지는 대승의 10바라밀에 없는 것이다. 그 중 9)자(慈)바라밀, 10)사(捨)바라밀은, 대승의 4무량심(無量心)의 자비희사(慈悲喜捨)중 두 가지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⑬ 이해의 길 33

격의, 중국인 불교 이해 방식

〈格義〉

13세기 초 불교는 인도에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히말라야를 넘어 실크로드를 통해 저 멀리 중국과 티베트, 한국,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남방으로는 스리랑카, 태국 등지로 널리 퍼져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불교가 해외로 전파되는 데 아소카왕의 공이 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여동생을 스리랑카에 파견했을 뿐만 아니라 전법을 위해 많은 승려들을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에 보내기도 하였다. 아소카는 전륜성왕(轉輪聖王), 즉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왕이었다.

이처럼 불교는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새로운 문화와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고유 사상과의 한판 대결은 불가피했다. 특히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지역일수록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결은 더욱 치열했다. 문화와 사상 역시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의 경쟁 속에서 화려한 꽃이 피기 마련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기 전에 이미 그곳은 공자와 맹자, 노자, 장자, 순자, 묵자 등 뛰어난 사상가들을 배출한 지역이다. 흔히 제자백가(諸子百家)라고 불리는 사상체계가 불교가 전파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완성되어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불교라는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중국인들은 스리랑카를 비롯한 남방 지역과는 달리 불교를 원형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적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얀 도화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로 색칠된 도화지 위에 불교라는 그림을 그려넣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유사상인 유교와 도교의 시선으로 불교를 해석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불교 이해 방식을 격의(格義)라고 한다. 매우 낯선 불교의 뜻(義)을 자신들의 언어로 헤아리고자(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예컨대 이탈리아에 가서 처음으로 스파게티를 먹고 온 사람이 이 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스파게티는 '서양 국수'라고 말이다. 그러면 피자는 자연스럽게 '서양 빈대떡'이 된다. 비록 스파게티와 국수는 다른 음식이지만, 스파게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익숙한 국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격의의 방식으로 낯선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였다. 불교가 들어온 지 오래 지나지 않은 위진(魏晉)시대에 주로 유행하였다. 그들은 불교의 공(空)을 도가의 무(無)로, 열반(涅槃)을 무위(無爲)로 해석하였다. 비록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고유 사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유학에서는 불교의 5계(戒)를 5상(常)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즉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를 금하는 불교의 계율을 유교에서 중시하는 다섯 가지 덕목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으로 설명한 것이다.

물론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계율을 유교의 인(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둘 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근저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계율과 유교의 덕목 가운데 일부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발생 배경이나 의미는 서로 다르다. 마치 스파게티와 국수 모두 밀가루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두 음식이 다른 것과 같다. 피자와 빈대떡은 둥근 모양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 동일한 음식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공과 무, 5계와 5상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

이러한 격의불교는 중국사상과의 융합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불교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어떤 사상도 살아남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러한 성찰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불교를 중국에 전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었다. 마침내 중국인들은 불교는 도교, 유교와 구별되는 고유의 사상체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수는 국수였고 스파게티는 스파게티였던 것이다. 퓨전 스파게티, 즉 불교의 중국화는 그 다음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81호 | 17 | 전면광고

흰 천에 묻은 얼룩은 눈에 띄지만 악인은 검은 옷에 먹물을 칠한 것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지도론》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효보당 108사주 사주비법 완전전수

(포인트"엑기스" 위주로 가장쉽게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한손으로 잡을수 있도록 강의해드림)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인생, 인체의병,영가,일년신수,왜! 원인과 해결)
-과거/현재, 미래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공양주
모십니다.

010-4448-3750

지장성모님 예불동참

만불사는 지장보살어머니 신행중심
국내외 지장신앙 불자 다문화가족
한국방문시 숙식무료, 관광쇼핑
다문화가족 친정마트 사업지원
가족불 100만원 / 법당불 50만원
탱화별도 1인1불, 저작권 있습니다.

권佛寺종무실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

영통 기도법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도심속 아름다운 절
운영할 비구니 주지스님
비구니 기도스님
사무장, 공양주를
모십니다

010-6892-3999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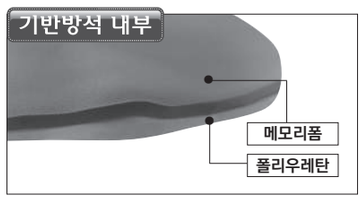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비구·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황토장뚜껑 지점모집

- 기후변화에도 장맛을 지켜줌
- 뚜껑을 열지않고 볼수 있습니다
- 과학적 설계 가운데 유리가 부착

3종류 각 300개씩, 선불 30일후 배송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 사본

♣ 치유농장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문의 043-745-3332

인연을 찾습니다

정토마을을 함께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창영, 대지 : 453평
- 사찰등기 해드릴수 있습니다.

심우사
010-3753-7844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81호 | 18 | 전면광고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남을 대하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안내 (임대)

- 위치 : 경주시 양남면 상계리 산70번지 / 마우나 리조트 부근.
- 울산, 포항에서 25분 거리임
- 용도 : 사찰 및 수목장으로 최적지임
- 토지 : 2만7천평임 / 현.지목은 대지 및 임야 주차장이며 임야는 70% 부지 조성 되어 있음
- 건물 : 800평(6층/현재 연수원으로 사용하며 깨끗함)
- 특징 : 정남향. 전면하천. 청수폭포. 인근 민가 없음
- 양도가는 현장 답사후 결정함(양도. 임대협의)

010-3877-68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토굴 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7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위치 : 부산 신평 토지 5천여평
- 주거지역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포함

010-9906-3631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방문후 결정.

010-3422-3232

토굴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연엽산자락
- 대지:150평. 전1,050평
- 건물:25평(경량철골구조) 창고:6평, 마을끝 자락 위치. 조경완료.비구니스님최적
- 가액: 1억7천만원

010-3518-395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가액 : 1억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창말5길 28-6
- 사찰대지300평, 법당22평, 삼존목불, 소불108불 ● 요사체 약40평, 종무소8평, 산신각2평 ● 약사여래불4평, 용왕당2평, 실내화장실3곳, 야외화장실2곳 ● 태양광, 태양열2조 ● 가액 : 3억 7천5백만원 ● 은행대출 6천만원

010-8982-44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시장 옆
- 건물 2층(약30평)
- 삼존불, 호신불 다수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517-2357

좋은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도심속 명당사찰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 대지 : 216평
- 주택(판넬) : 50평
-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주택구조), 조경, 주차완비
- 가액 : 9억 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사찰 안내

- 의정부시 가능역 사거리
- 평수 : 25평(방1)4층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 77만(부가세포함)
- 시설비 1천만원(100%완벽 A급)몸만 오시면 됩니다.
- 주차장 완비

010-5497-3885

사찰 안내

- 위치 : 1호선 범일역 입구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 귀금속골목 입구(상권최고)
- 법당완비, 에어컨 주방시설 완비, 상담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9660-6677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2층에 2층, 약 80평
- 보증금 250만, 월 40만
- 시설비는 보시고 협의
- 16년 포교원 운영중

010-9422-1233

◑ 입종 안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포교원 할분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시장옆
- 2층건물 2층 20평 남향코너
- 보증금 2백만원
- 월 55만원
- 권리금, 부가세 없음

010-5381-141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 최고요지, 지하철 5분~10분거리
- 뒤에는 산,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
- 대지 : 100평 사용중, 74평 허가득
- 건물 : 법당30평, 방1, 창고2, 화장실2, 요사채 30평, 방2, 다용도실1, 샤워실1, 창고1
- 가액 : 3억 3천 성업중(가격절충)

010-6565-2042

포교원 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5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꿔)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기부가 타인의 기부로 이어지길”



Interview

평생 일군 재산 동국대 기부한 전병천 · 김정숙 씨

인천 소재 아파트 · 상가 기부
불자 학생 대상 장학기금 활용
원찰 주지스님 가르침 새기며
평소 사찰 불사 등에 보시해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시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평소 스님께서 ‘회향을 깨끗이 하라’ 고 말씀하셨고, 이를 실천한 것뿐입니다. 남은 유산으로 자녀들끼리 분쟁을 벌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공덕을 많이 쌓으면 사후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보시는 남보다는 저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동국대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전병천(80 · 사진 왼쪽) · 김정숙(81 · 사진 오른쪽) 씨 부부는 기부에 대한 소회를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올해 팔순을 맞이한 전병천 씨와 부인 김정숙 씨는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와 인천 서구 소재 상가를 사후 유산으로 동국대에 기부키로 하고, 2월 11일 학교를 찾아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기부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향후 스님들과 불자 학생 대상 장학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매일 조석으로 몇 시간씩 기도를 할 정도로 돈독한 신심을 자랑하는 부부는 평소 사찰 불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보시행을 실천해왔다. 늘 회향처를 찾던 부부는 불교계 방송을 보던 중 한 노보살이 동국대에 1억 원을 기부하는 것을 본 후 장학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집에서 항상 BBS TV를 틀어놓아요. 하루는 텔레비전에서 한 노보살이 동국대에 1억 원을 쾌척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를 보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기부를 하고 이것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도 기부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부의 이 같은 보시행은 모두 스님의 영향이 크다. 이들 부부는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영덕사 주지 선공 스님이 조계종에 사찰을 기증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리 살아야 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앞서는 원적하신 혜원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너무 검소하고 청정하셨습니다. 혜원 스님은 쉰밥까지 씻어 드시는 분이셨어요.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우리 사회의 보시행이 확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처님에게 많은 가피를 받았는데 은혜도 못 갚고 갈까 두렵다”는 말에서는 부부가 가진 불심의 깊이가 느껴졌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를 주고가나 생각했는데 기부를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사실 돈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1억 원이 떨어져도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 생전에 다 베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불교계 방송을 보고 기부한 것처럼 내 기부가 또 누군가의 기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이 도담하우스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법련사 ‘사람중심’ 방생 나서

도담하우스에 200만원 기탁

조계종립 송광사 서울분원인 법련사(주지 진경)가 사람중심의 방생에 나섰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2월 13일 불교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 지원금 200만원을 기탁하면서 정월 방생법회를 대신했다. 지원금은 법련사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법련사는 매년 정월방생법회를 기해 대사회활동에 나서고 있다. 법련사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양식 어류 방생을 지양하면서 생명존엄사상과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군부대, 복지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인간방생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법련사가 지원금을 전달한 도담하우스는 사단법인 깨달음과나눔 이사장이자 불교여성개발원 부원장인 이매옥 보살의 원력 아래 2015년 9월 서울 마천동에 개원했다. 미혼모자시설로는 불교계에서 사실상 유일하다. 2016년 조계종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이곳을 방문해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희귀병 환아 쾌유 기원”

생명나눔실천본부, 2월 11일 지원금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2월 11일 법인사무실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이 참석해 김광호 강서 큰나무재활의학과의원 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2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는 희귀 질환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주현(가명, 남 4세) 군이다. 주현 군은 출생 전부터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생후 5개월 때부터 시작된 크고 작은 경련으로 인해 결국 좌측 후두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이로 인해 언어, 인지, 작업 등 여러 가지 발달사항에서 뒤떨어져 평생 재활치료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계 형편 좋지 않아 치료를 중단해야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였다.

이에 생명나눔은 ‘행복한 빈손’ 소식지를 통해 사연을 알렸고 치료비를 모금해 전달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아이가 치료를 꾸준히 받아 조금이라도 호전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경남포교사단 “사찰연계 강화”

창원 성주사서 2월 8~9일 운영위원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은 2월 8~9일 창원 성주사에서 운영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는 지역단 팀장과 임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으며, 입재식과 강의, 예불, 정기운영위원회의 등을 진행했다.

박해덕 경남지역단장은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찰과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회원들 간의 폭 넓은 소통을 거쳐 발전하는 지역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문도 역대조사 추모

구례 화엄사, 다례재 봉행 · 부도탑 참배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2월 9일 화엄문도장 명선 스님을 비롯한 원로 스님들과 주지 덕문 스님 등 100여 명의 문도가 참여한 가운데 ‘화엄문도 합동 추모재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근세 화엄사 중창조인 도강 · 도천 스님을 비롯한 역대조사 다례와 부도탑 참배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린이 질병예방 도움되길”

부산 무량정사, (사)동련에 마스크 기증



부산 동래 무량정사(주지 취산)는 2월 13일 (사)동련 사무국에 어린이용 마스크 1000개를 기증했다. 마스크는 봉사단체인 행복나눔위원회에서 기증받은 것으로, 취산 스님은 현재 위원회서 불교분과 총재를 맡고 있다. 취산 스님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 아이들이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평화 위한 ‘동물천도재’

화순 시적암, 반려 · 살처분동물 극락왕생 기원



화순 시적암(주지 법일)은 2월 11일 경내에서 ‘동물 천도재’를 봉행하고, 가족 구성원이었던 반려동물과 조류독감 ·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 당한 동물을 위로하는 극락왕생 발원 기도를 올렸다. 법일 스님은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명평화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동봉사
• 주 지 : 해원 (속명 : 태경환)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1길 37-1(입석동)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5일

(사)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법하

한국불교 전통의식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종무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불교전통의식을 개강합니다. 강주 민지효스님은 기초부터 각종 범패의식을 십여년간 강의해온 노하우 실력으로 알기 쉽고 잊혀지지 않는 범음범패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시로 기초적인 의식을 강의하여 절 살림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며 아직 초발심인 스님을 위하여 훌륭하신 은사님을 소개하여 득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분은 홍익 범패단으로 입단하여 회원으로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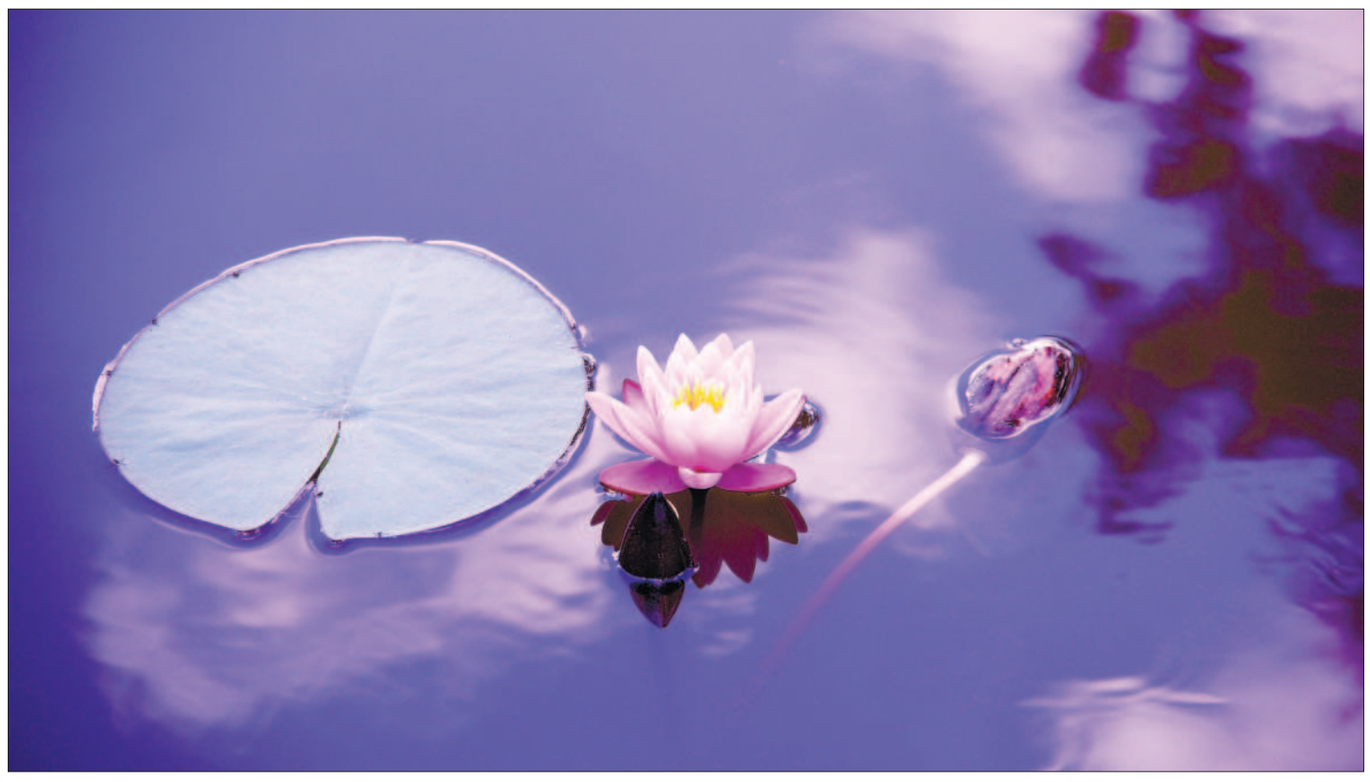
■ 개 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 장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선금

지효스님 010-4466-3575
종무원 송과장 010-9610-8505

교육기간	강 사	교육내용
3월, 4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도량석 새벽 종송 2교시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3교시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구궁법,명리학
5월, 6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거불, 사시불공, 조석 예불 2교시 시다림, 장례의식 3교시 구병시식, 방생의식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7월, 8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9월, 10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화의재 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1월, 1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천수바라, 요잡, 화의재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월, 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바라작법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부산 종무원장 자관 | 강주 민지효

상처 직관하면 '평화·행복'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④ 마음을 바라보는 법

4-1 인간은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부모 탓, 환경 탓, 남의 탓을 하며 살고 있지요. 붓다는 모두 '자신이 지은 것이니 자신의 책임이다(자업자득)' 고 하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제부터 마음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위한 여정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본 후 마음을 바라보세요.(1분)

마음은 크게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됩니다. 명상을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손님이 잡념이고 그 생각들에 섞여 흐르는 감정들이 있군요.

보이시나요?(웃음)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생각하는 줄도 모르지만 생각을 바라보려 하면 또 사라지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애쓰면 생각은 더 기승을 떨고 그 생각이 도대체 뭔가하고 보려하면 아지랑이처럼 사라집니다. 분석 상담에서 꿈을 기억해보라 하면 아지랑이처럼 빠져나가 꿈을 떠올리지 못하다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꿈이 점점 이야기 형태로 길게 기억하게 되듯이, 마음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 호흡과 감각 등 몸을 관찰하는 것을 먼저 연습하는 것이지요. 꾸준히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꿈 속에서도 꿈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도 꾸준히 바라보면 생각도 감정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4-2 생각들은 끊임없이 떠올랐다 사라져갑니다. 어느 한 생각이 고정되어 머무르는 법은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대체로 명상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집착하지 않는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지금 여기' 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 이 순간만 강조할 때 위험이 따릅니다. 마치 지금 여기는 시공간적으로 고정된 찰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결과로서 또는 상황으로서 보는 시각은 창조론적 관점입니다. 명상의 바라봄은 연기적이라 부릅니다. 연기론적 관점은 찰라를 보는 게 아니라 찰라의 흐름, 즉 일련의 역동적 맥락을 봄을 말합니다.

어렵다구요?

불안한 마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불안한 마음은 창조되었나요?

불안이 어디서 비롯되었나요? 누가 만들어서 나에게 주었나요?(잠시 눈을 감고 숙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생각이나 기억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군요. 불안한 마음은 생겨났군요. 불안하게 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안한 마음에는 원인과 조건과 배경 등이 있군요. 자신도 기억 못하는 까마득한 시절의 상처를 포함해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임을 봅니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창조보다는 형성되었다는 표현이 더 실재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어렵다구요?(웃음)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면 어려워지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머리로 이해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명상하면서 숙고해보는 것이지요.

4-3 명상을 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 가운데 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잘거리는 마음이지요. 두려움에 떠는 마음, 환상이나 백일몽같은 마음, 망상하는 마음,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등등 여러 잡다한 생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과 자신을 책망하고 비하하는 마음도 포함되고 있군요. 원망이 지극하면 원한이 되고 증오가 되고 폭력적인 살상의 행동까지 일어나는군요. 이 모두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산란한 마음은 어디서 올라올까요?

삶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뒤덮어버리는 소음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소란한 마음 배경에 도사리고 있나요?(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1~2분간 숙고)

눈을 살며시 뜹니다.

무엇인가요? 이는 마음 속 상처에서 피어납니다. 상처받은 부위가 아물지 않으면 계속 염증이 확산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상처란 무엇인가요?

예,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마음 상처, 두려움 · 공포
자신의 방어 기제로 표출
타인에 상처 주기로 전환

무언가를 잃을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움에 떤 나머지 반응하는 일련의 정신적 과정들이 소음의 정체이군요. 이렇게 마음은 위험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데 익숙해진지 오래여서 인류 시작부터 수많은 위험(물리적)과 위협(정신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안을 만들어서 나에게 건네준 게 아니군요.

4-4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안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들뜨고 괜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언제 마음이 불안한지 숙고해볼까요?(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본 후 1분간 숙고)

불안은 어떤 위협에 대한 경고음이군요. 무언가 잘못될까 봐 실패를 예견하고 중요한 것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는군요. 근심 걱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하는군요. 버림 받을까봐 벌벌 떠는 아이처럼 두려워하는군요. 그래서 또 다시 상처 받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군요. 실패와 실수를 안하고 잘 하려 애쓰는데 잘 되지 않는군요.

이제 마음 속으로 한걸음 더 깊이 내딛겠습니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가요?(숙고 1분)

칭찬 받지 못할까봐, 인정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군요. 결국 사랑 받지 못할까봐, 사랑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군요. 이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군요. 그래서 미래의 일도 잘못될까 봐 미리미리 걱정하는군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막는군요.

4-5 마음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상처 받지 않기 위해서 인류가 고안해낸 보호장치가 '탓' 입니다.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투사' 가 그것이지요. 그 문제는 네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라고 밖에다 던져버리지요. 투사는 '부정' 이라는 보호장치와 병행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부정하 '고 네 책임이라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해야 내가 편하고 위안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탓하면 문제 해결이 되고 괴롭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남을 탓하여 상대방에게 던졌으니 그것을 상대가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도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밖으로 던져 버리니 충돌이 일어납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을 들여다 보면 이러한 과정이 공통으로 보이군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잠시 숙고)

고통은 피할 게 아니라 마주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탓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남에게 있고 환경에 있어서 나의 권한 밖이 되어버리는군요. 숙고명상은 이것을 잘 들여다 보아 자기 방어를 해체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드는 주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자각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상대가 욕했건 배신했건 폭력을 휘둘렀건 상대의 문제는 그에게 맡기고 마음의 평정을 잃은 것은 내가 만든 것이라는 자각이 생기면 비로소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없애려고 바둥대거나 회피 도망치기 급급하기가 아니라 현재 불편한 감정 상태 또는 마음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애롭게 받아들이고/ 자애롭게 바라보고/ 자애롭게 안아주기입니다.

현재 불편하고 괴로운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눈을 감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1~2분)

오직 자신의 좋은 점도 싫은 점도 추악한 부분도 부정하지 말고 냉대하지 말고 무의식의 창고에 꽁꽁 쌓아두고 숨기지 말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만 자신을 비난하는 행동이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이 멈춰지는군요.

4-6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 〈싯다르타〉등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걸작이 나오기 까지 정신적 방황과 고뇌가 깊어 정신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이 뇌수막염, 아내는 우울증, 본인은 조국 독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등, 고통이 극심하였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지요.

고통을 사랑하라. 거부하고 도망다니지 말라.
고통을 거부하면 아픔을 줄 뿐.
고통과 함께 한다면 고통이 고통이 아니며
죽음이 죽음이 아닌 것을.
빛과 색채가 세계를 떠돌다가 사랑의 물결 속에서 굽이쳐져 울려 나온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그저 행복하라.' 는 한가지 의무이다.

등의 주옥같은 글을 남긴 것도 고뇌와 우울을 깊이 맛보고 고통을 성찰한 후에 우러나온 것들입니다. 행복은 그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으로도 물건으로도 사람으로도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사라져야 행복해집니다. 어떤 조건(돈, 물건, 사람)이 충족되어야 행복한 것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잃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군요. 고통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행복이 온다는 것이지요.

4-7 어떤 문제의 해결도 그 문제가 발생한 과정을 낱낱이 보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들도 그러한 연유와 과정이 있기에 생긴 것임을 숙고해보아야 합니다. 연상을 통해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그 상처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자각한다면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 통찰은 현재의 삶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고 대인관계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무의식화된 카르마(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실패나 실수를 부끄럽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받아들임으로써 실수할 수도 있고 수많은 실패의 과정 끝에 도달하는 게 성공이라는 인식이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적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실수와 실패에서 배우고 재도전하게 됩니다. 오뚜기 기억하시지요?(웃음)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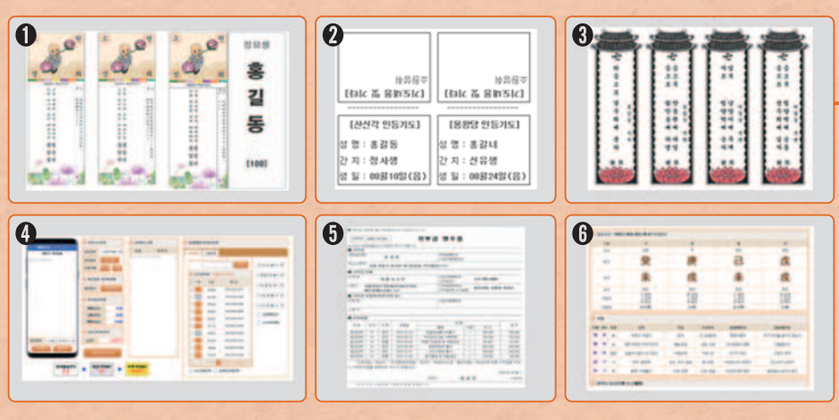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검색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대행 스님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할 수가 있나요?

병고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싶어요

질문 보왕삼매론에도 "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으로써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만 육신의 병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특히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고가 닥치더라도 두려움 없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프다 이런다면 그저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또 어디가 무너졌다 그러면 무너진 것만 가지고 법석들을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그 무너짐과 병세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오는 거보다 더 시급한 게 바로 벗어나는 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 증세나 어떠한 걸 가지고 그거를 방편을 삼아서 공부해라." 이런 것이죠. 모든 게 자기가 지어 놓고 자기가 모든 거를, 인과성이나 유전성이나 다 자기가 가져 있는 거니깐 '너만이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러곤 다 버리라니깐 안 버리고 오히려 그냥 그거 낫게 하는 것만 가지고 야단이거든요. 하나가 없어지면 둘 셋이 다 없어지는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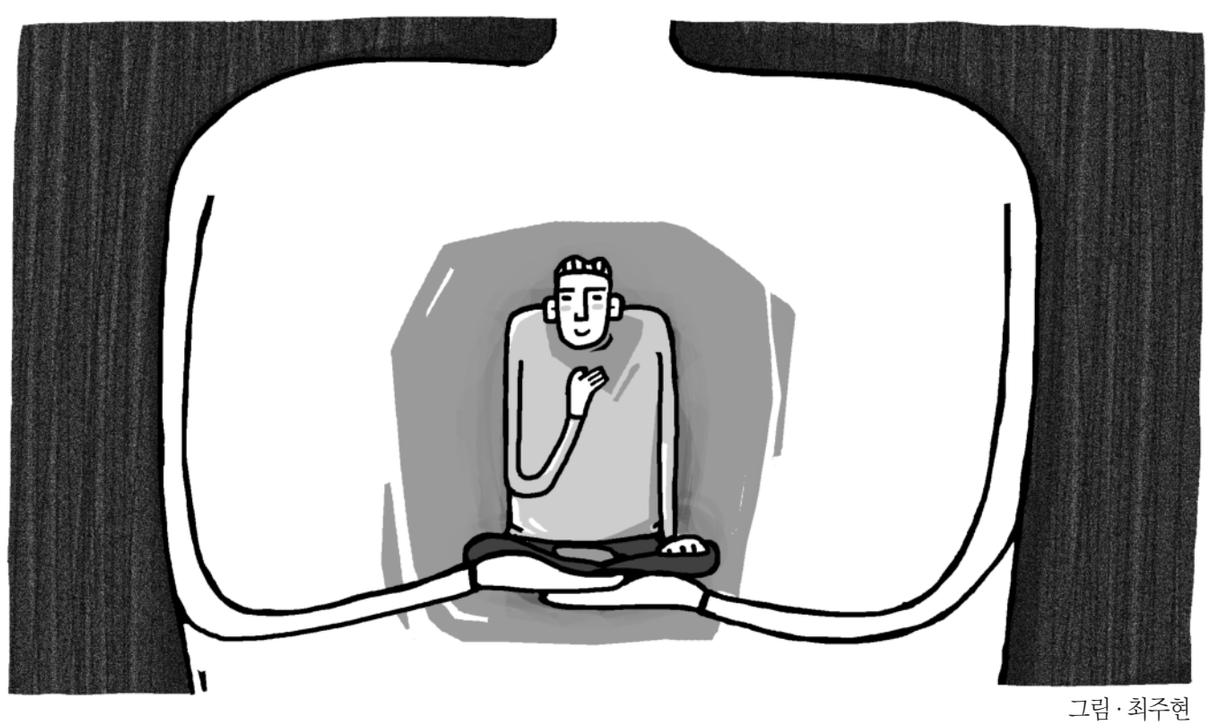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께서 약사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왜 이름을 내놨겠습니까? 그 관리인들의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다 거기다 한데 합쳐 놓으면 보살이나 중생이나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게 부처와 둘이 아니로 되는 거다. 둘이 아닌 까닭에 의식들의 그 인과성도 병 증세도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병부터 생각하니까, 나빠진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생은 짧고 벗어나기는 긴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느냐. 그 처리는 한생각밖에는 없습니다, 한생각! 이렇게 살아도 한 인생, 저렇게 살아도 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우글우글해도 사람이라고 곤충하고 뭐 다른 게 있으며 벌레하고 뭐 다른 게 있으며 짐승하고 뭐 다른 게 있느냐. 모습만 천차만별로 다를 뿐이다. 모두 이 몸 자체 속에다가 곤충을 넣어 놓고 그것이 제가끔들 돌아서 제가끔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사람들이 이러고 사니까 그것마저 쫓아서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깐 못된 병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벌써 곤충들이 싸움이 나서 서로 잡아 죽이면 죽이는 쪽이 그냥 굳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태를 모두 알고 이걸 대치를 해서 지내면서, 사는 것도 좀 유유하게 좀 편리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음의 조작이지 육체의 조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육체는 움죽거리게 돼 있으니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태어나기 이전의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 자기는 정신계의 자기고, 정신계의 자기가 지금 현실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를 형성시켜서 놓은 자체거든요. 그런데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거는 자기한테 그대로 보배로서 있는 건데, 그거를 진짜 알아서 우리가 둘 아닌 도리,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거를 알고 '낫게 하든지 낫지 않게 하든지,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할 수 있지 않아. 지켜 주는 것도 너고, 이끌어 주는 것도 너고, 해결사도 너고, 죽이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너만이야. 너만이 있어. 너만이 함이 없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나와 안 보이는 너가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가 보이면 자기도 보이고 내가 안 보이면 자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밀접하게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때 들어 보면 아주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어디가 어떻다고 어떻다고, 이렇게 그냥 치명적인 말을 병원에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3년이나 4년 됐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됐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 그래?" 그러면 씽긋이 웃으면서 "오기는 그렇게 왔으나 몇 번 오지는 않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마음공부 하는 이 도리는요, 한 번 인연을 만나는 게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마음공부 하는 게. 이 옷 벗고 옷 속의 그 곤충의 세계를 다 벗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 보기 흉하고 그런 곤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는 못 된다 하더라도, 비천상 보셨죠? 날아다니면서, 금비까빈가 은비까빈가, 그런 것처럼 그저 이것도, 이 모습으로도 됐다가 저 모습으로도 됐다가, 이거를 건지려면 이 모습으로도 되고 저거를 건지려면 저 모습으로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선 다 건지고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곤충들도 자기 모습이니까 모든 거를 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둘이 아니에요. 나는 그 참, 보이지 않는 데 어떠한 귀신이다, 어떠한 신장이다, 어떠한 뭐다 하더라도 겁 안 나는 게 뭐냐 하면 산 사람도 산 귀신이에요. 허허허. 죽은 사람은 죽은 귀신이고요. 그런데 산 귀신이 더하지 죽은 귀신이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귀신끼리 해결을 하는 거죠. 항상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라 이런 거예요.

정신계에서 귀신같이 노는 거는 전부…, 이거 보세요. 공에다가 그냥 모두 집어넣으면, 공을 집어넣으면 뭐가 남습니까, 거기. 공에다 공을 집어넣는데 그 얼마나 빨라요, 글쎄. 사람들이 그냥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너 있으면 나 있고 나 있으면 너 있고 모두가 둘이 아닌데 말입니다. 세울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런데 뭐가? 모두가 둘이 아닌데 이 컵과 컵이 둘이 아니라면 한 컵이, 자기 컵 하나가 자기 컵을 깨트리겠습니까? 마주쳐야 깨트려지지. 그걸 명심하세요.

남은 인생 잘 회향하고 싶습니다

질문 젊었을 때는 살아가는 데에 정신없어 제 인생을 살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퇴임하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 비로소 제 인생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살림은 좀 곤궁하겠지만 이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 남은 인생을 잘 회향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옛날에 어느 딸이 소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소를 몰고 나간 딸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냥 화가 나서 발발발발 뛰는데 아버지는 그러거든요. "나갔으면 소를 다 처리했겠지, 뭘." 하더랍니다. 그래서 딸이 들어왔는데 그냥 맨손으로 그냥 터덜터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소는 안 가져 왔느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소리가 "네 기둥을 매고선 네 발을 묶어 놓고 그 가운데다 불을 질러서 구워서 동네방네 사람들하고 다 구워서 잘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 아버지 따라서 벌써 딸은 깨침이 있었단 얘깁니다. 그 어머니도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아둔해서 영…. 그러니깐 그냥 펄펄 뛰고 그 소를 얼마를 주고 샀는데 그 소를 갔다가 다 구워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먹였느냐고 야단을 하죠. 그러니까 딸이 있다 하는 소리가 "나도 없고 소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야단을 하십니까. 어차피 소 한 마리 가지면 동네방네가 다 먹어야, 즉 말하자면 이 세상이, 삼세가 다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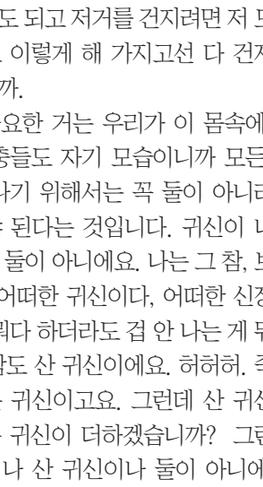
☞ 22면으로 계속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서 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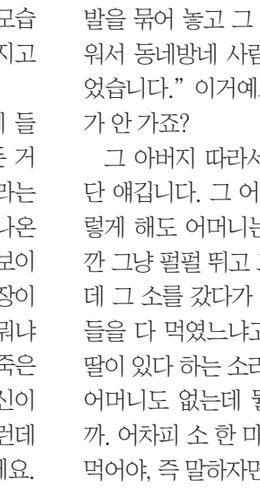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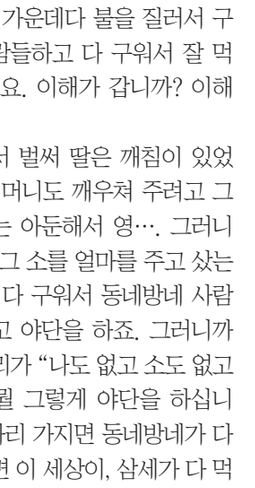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1.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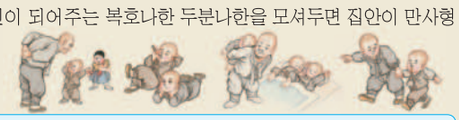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좀 마음을 넓게 쓰고 한 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21면에서 계속

어야 할 일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엉뚱나간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현재 일심으로 돌아가니 그게 과거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거 소 한 마리 가지고 다 먹였다는 게 그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삼세를, 삼세의 모든 인연들을 다 먹였다는데. 동네방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 이게 그걸 모르면 팔자 운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고, 현실도 공했다. 그저 마음에 따라서 육신은 움죽거리니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할 수 없겠죠. 매사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악수를 하니까 “어떤 게 먼저 가더냐.” 하니까 마음이 먼저 가더라. 그러니깐 손이 그냥, 그냥 따라서 그냥 가더라. 그러니까 몸뚱이 하나 움죽거리는 게 전체예요. 전체인데 그렇게 움죽거리는 걸 잘 리드해서, 잘 다스려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잘 내면 될 거를, 요만한 것도 잘 못 내고 크게 만들어선 그냥 불려 가지고는 오히려 그냥 자기가 상처가 나고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그 마음을 안유시켜서 편안하게 만들고 사는 게, 캠핑 나와서 한 철 사는 게 다 그러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냄비가 있으면 냄비대로 솥이 있으면 솥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한 철 사는 건데. 그렇게 좀 마음을 넓게 쓰고 그렇게 한 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에서 탤런트들이 한 철 고렇게 영화 막이 내리면 그뿐인 거를 뭐, 갈 때 거지 역을 맡으면 어떻고 머슴 역을 맡으면 어떻고 대왕 역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칼잡이 역을 맡든 도둑 역을 맡든 어떤 역을 맡아도 그게 단순하게 한 막이 내리면 그뿐인 줄 알고 있으니깐 그거 아무렇게나 나가도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몇천 년, 몇만 년 살고 이러는 줄 알고, 그냥 모두 이거는 차곡차곡…. 물론 그렇죠. 깨끗하게 하고 사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욕심 많게 쌓아 두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죠, 모두가. 이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낑겨 둔 뭐가 있다면 빨리 내줘야 마음이 시원하니까 빨리빨리 그 즉시에 이렇게 나누어 주듯이 또 마음도 역시 그래야 우리가 회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집을 지어서 끝을 마쳐도 회향이고 밥을 지어서 밥을 먹고 나도 설거지를 다 해야 회향입니다.

이 회향이 너무 많고, 이 만물만생이 다 여러분들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스승이에요. 돌 하나라도 스승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저렇게 나쁘게 해선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보니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세계의 진리니까, 삼세를 돌아가는 수레와 같은 진리이니깐 우리는 ‘삼세를 뛰어넘었다, 점프했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밥을 굶게 되든 그냥 뭐가 되든 그냥 그 주장자 거기에, 자기는 심부름꾼이니까 그 주인더러 그냥 맡겨서 ‘네가 끌고 다니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너 맘대로 해라.’ 하고는 그냥 편안하게 해 두면 다 제가 형성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다 끌고 다니며 먹여요. 예전에 내가 그랬어요. 칫솔 하나 안 가지고 나갔지만 끌고 다니며 다 먹이더라고요. 하다못해 뿌리 하나를 먹이고 싹 하나를 뜯어서 먹여도 먹이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있게 먹으려고 그거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낚시로 살생을 많이 했는데…

질문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면 낚시를 하러 가곤 했는데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 제가 너무 많은 살생을 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어떻게 참회해야 될까요?

답변 우리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물에서 노는 거든지 날아다니는 거든지 들에 다니는 거든지, 그런 것이 전부 힘에 따라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올라오면 사람의 고깃덩어린 먹지 않는데 그 대신에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참 묘한 법입니다. 서산 대사(西山大師)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자기 마음이 새 마음으로 들어가서 새가 내려오고 싶으니까 내려왔다 이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영, 영’ 해 놓으면 그게 몇이나 됩니까? 그냥 영이죠? 이 모두가 연결돼서 인연 따라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에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지.

그런데 살생이라 하면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 관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아닌 자기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그냥 살생이 되는 겁니다. 업보가 되고. 그렇지만 그거를 알고 나오는 거나 들어가는 거나 그 한자리에 모든 것을, 나쁜 게 나오면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좋은 게 나오면 ‘감사해.’ 하는 그것으로 다 그게 업이 되지 않고 유전이 되지 않고 또 복수가 되지 않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깐 복수로 연결이 돼서 끝끝내 10대(代)고 20대고 30대고 그냥 쭉 계속해서 복수를 낳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더러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또 나라에 누가 되게 하고, 자기가 그냥 볼품없이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를 자기가 누가 되게 이름을 손상시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뭔 일이냐 하면은 보이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자기를 무시하고 이 운전을 하려니까 그거밖엔 못 살아요. 그거밖엔 못 하거든. 그냥 바깥으로, 물질세계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 해 버리니까.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저절로 그렇게 자기가 그 에너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에너지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꾼다 하더라도 난 못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야 비구빈천에 돌고 돌면서 찰나찰나 변함이 오고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가는데, 나투는 거 아세요? 나투는 거는 표현을 할 때, 즉 말하자면 한 발짝 떼 놓고 나면 한 발짝 없어지는 거예요. 찰나찰나 나툰다.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 매사 게 다 그렇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바로 그것이 부처가 가능하다. 99% 가능하다. 그런데 나무에 흙 덮인 것처럼 우리는 무명에 그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본다.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게 보아진다 이겁니다.

이 모두가 과학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구해서 내나 또는 농사를 지어서 먹으나 또는 할 줄 아는 거를 하는 거나, 전부가 과학 아닌 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좀 더 어려운 건 ‘요렇게 잘해야지’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게. 어디 과학이 따로 있나요? 심성 없이 어떻게 과학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리를 아는 분들은 그저 근데 악이냐 선이냐, 잘못하는 거냐 잘하는 거냐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운전하는 걸 알아야 된단 얘깁니다. 어느 누구가 잘못 살려고 하고 그럽니까? 잘못하려고 하고? 모두들 번연히 알면서도 잘못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보가, 수없는 갖은 각색의 업보가 다 있건만 그거를 없애는 도리가, 바로 그것이 정수에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걸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도 붙지 않는다. 살생도 붙지 않고 모든 게 다 붙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어, 앞으로 내 죄가 많은데 어쩌랴.’ 하지마는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는 분들하고 기복으로 그냥 하는 분들하곤 다릅니다.

기복으로는 형상이나 이름을 보고 기도를 하고 믿고 다니지만, 그리고 거기다 살려 달라고 빌고 그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도깨비장난밖에 안 되느니라.” 양무제더러도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덕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저 인으로, 웃을 땐 웃고 웃지 않을 땐 웃지 않으면서도 인으로다가 다루고 섭섭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바로, 나는 찾았는데 모두를 다 귀합을 시키지 못할 때는 그때는 대승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한마음을 말입니다, 관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좇아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자기를 좇아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죽은 세상에 가니까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진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죽은 세상에는 가 볼 수가 없죠. 죽어야 가 보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내가 곧장 그냥 길을 가야지, 그게 도의 길이지, 가다가도 얼뜻 쉬고선 여기서 참견하느라고 산란케 굴거든요. 그러면 점점,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것은 귀합을 시킬 수가 없죠.

그 귀합이라는 것도 본래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진리가 그러하단 얘깁니다. 공생이며, 이 몸속에 있는 것도 공생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한 개체가 그냥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생각에 모두가 이렇게 통신이 된단 얘깁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관습에 의해서 자꾸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그냥 다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모든 살생도 모든 잘못됨도 다 붙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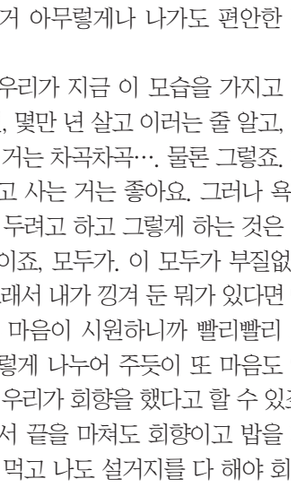
자기 뿌리에 몽땅 다 달려 있는데
싹이 무슨 걱정입니까.
바람이 부니 걱정입니까, 비가 오니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나무들을 보세요. 나무들이 말입니다, 자기 뿌리에 그냥 몽땅 다 달려 있는데 싹이 무슨 걱정입니까, 글쎄. 바람이 부니 걱정입니까, 비가 오니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뿌리에다가, 뿌리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싹을 죽이게 되면 요 뿌리가 더 내려서 깊이 박혀요.

그것도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그래요. 흔들흔들해서 비가 와서 넘어질 것 같으면 뿌리를 그냥 사방에다가 넓게 박아요. 그래서 저런 나무들도 초식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저 올해는 많은 비가 오고 많은 장마가 드니까 내가 뿌리를 튼튼하게 뒤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서 어떡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을 그저 아무것도 거기 붙임 없이 오직 살아나가는 그 모두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구녁밖엔 없어요. 구녁 없는 구녁이 그 구녁밖엔 없다고요. 일체제불이 통과하는 구녁은 그 구녁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일체 만물만생이 통과할 수 있는 구녁이 그 구녁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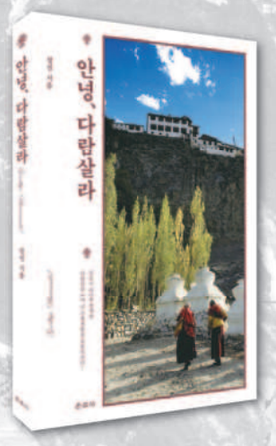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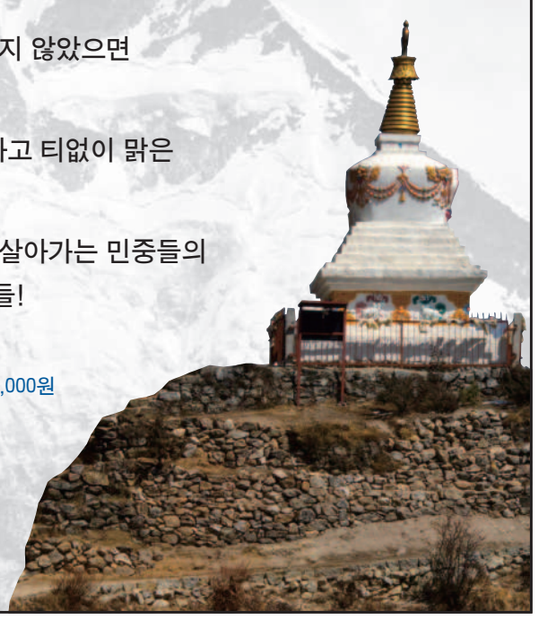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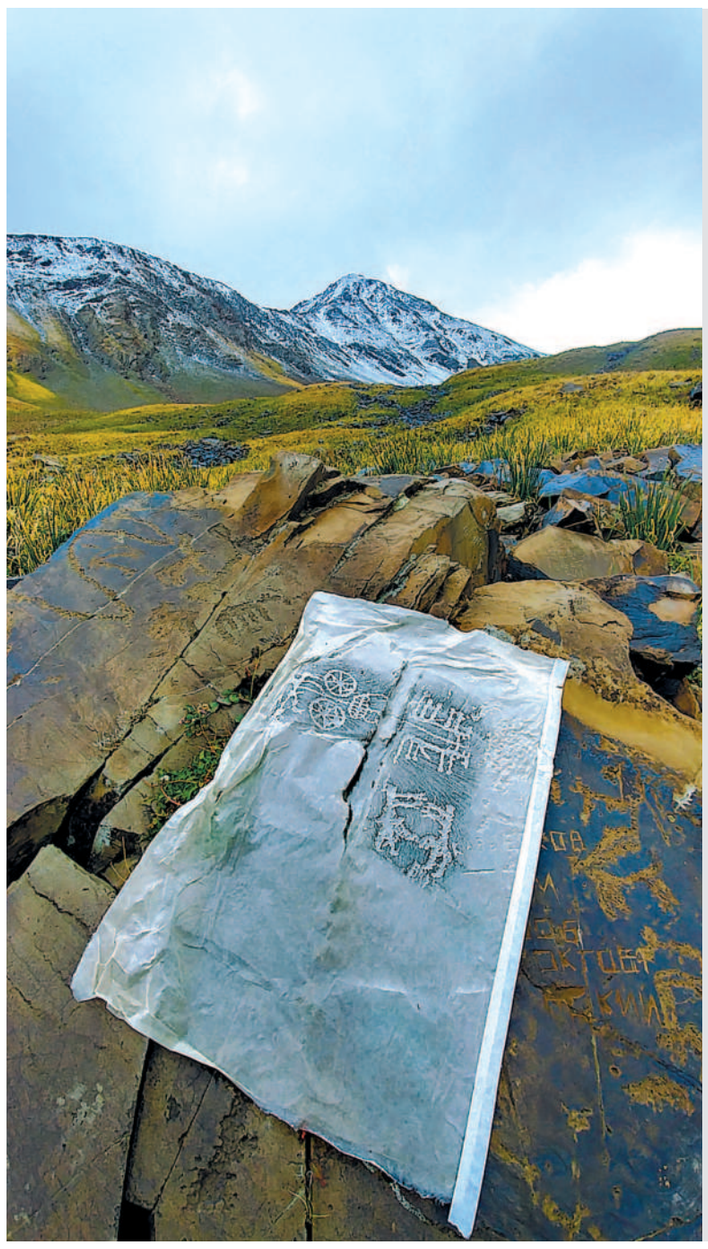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마차가 왔다



사내가 왔다
두 바퀴 마차를 몰고
사내가 나타났다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훠이~~
길 비켜라

님이시다

춤 추며 반겨라

역사를 기록 하여라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싸이말루이 따쉬에서 마차 그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 마차도 어렵게 발견했다. 아마 한 두 점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은데, 찾지 못했다. 사람은 마차에 타지 않고 짐만 싣는 구조의 마차인데, 바퀴가 강조되어 있고, 8개의 바퀴살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바퀴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치가 어느 정도는 쌓여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제의(祭儀)와 관련된 춤 그림이 함께 있는 것도 눈여겨 볼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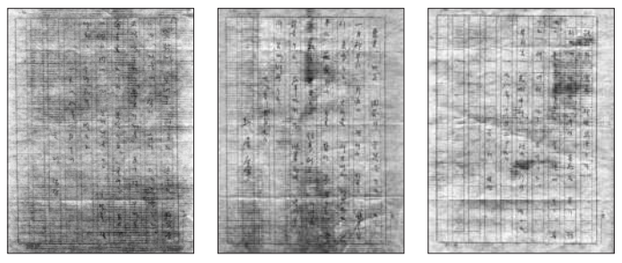
마차가 처음 나타나서 놀라기도 했겠지만, 마차는 그들의 외형적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중요한 일에 하늘에 제를 올리고,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암각화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탁본을 한 점 뜨기로 했다. 워낙 높은 고산이라서, 비가 한 두 방울 있는 듯 없는 듯, 떨어지고 있었고, 바람도 불고 해서, 탁본을 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산신령님께 절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탁본을 한 장 뜨겠으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 하고 고(告)하는 의식을 간단하게 한다. 그런 다음, 바위를 곱게 쓸고, 바위가 깨어나면 조심스럽게 물을 뿌린다. 그리고, 빠른 손길로 최고 품질의 한지(韓紙)를 물 뿌린 바위 위에 붙이고, 그 위로 광목천을 덮어 물기를 뽑아내면서, 살살 두드려 음영을 만들어 낸다. 적당한 햇볕과 바람이 종이의 습기를 말려주면, 솔가지를 태워 얻은 먹으로 암각화의 영혼을 한지에 옮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④ 운허 스님

바래지는 편지에 스님 생각



운허 스님의 서신.

서신 1

뜻 밖에 보내준 털옷과 목도리 잘 받았습니다.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교의 깨묵 책 50권 보내니 회원들 나누어 보십시오. 글씨는 앞으로 1개월 내에 써 보내겠습니다. 불법을 잘 익히고 수련하기 빕니다. – 1978년 1월 10일. 운허 합장.

연꽃모임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였다. 뜨개질을 잘 하는 회원 몇 사람이 의논하여 각자 한 사람씩 큰스님 외투를 뜨기로 했다. 회원들은 좋은 실로 외투와 목도리까지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나와 회원들은 해인사의 고암 스님, 통도사의 경봉 스님, 봉선사의 운허 스님, 신흥사의 탄허 스님 그리고 일타, 지관, 법정 스님께 외투와 목도리를 선물했다. 그때 운허 스님이 선물을 받고 나서 보낸 서신이다.

서신 2

惠書(혜서) 받고 회답이 늦었습니다. 나는 1월초부터 신병이 생겨서 지금도 快差(쾌차)하지 못합니다. 글씨를 써 보내려 하였으나 右手(우수)가 痲痺(마비)되어 붓을 잡지 못합니다. 사진 2개를 보냅니다. 녹음테이프는 내대는 없습니다. 우수 마비가 쾌차하면 글씨를 써 보내겠습니다. – 78년 4월 9일 운허 합장.

스님의 글씨를 받고 싶다고 편지를 드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스님께서 오른 쪽 손에 마비가 와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스님께서 미안한 마음을 서신으로 보내셨다.

서신 3

편지와 사진 잘 받았습니다. 전번에 가져다주신 목한은 품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늘 곁에 두고 봅니다. 책 4권 따로 보냅니다. 부처님 광명중에서 평안하시기 빕니다. – 78년 11월 27일 운허 합장.

1978년 11월 초, 회원 법해월과 운허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 갔었다. 가는 길에 스님께 드리려고 예쁜 함지박을 사가지고 갔다. 스님과 기념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도 스님께 가끔 안부 편지를 올렸다.

스님께는 답장하는 일이 일이 될 것 같아 답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는 도반들과 함께 보라며 자비도량 참법 책을 보내주셨다. 답장을 하면 내가 또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답장대신 책을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거의 손편지를 주고받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손편지로 많은 소식을 주고받았다. 이메일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세상을 바꾸었지만 조금 더디고 손이 가야했던 손편지에서는 이메일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세월과 함께 낡아가는 편지지와 편지봉투, 편지지와 편지봉투는 시시각각 바래지지만 그 속에 적힌 글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짙어가서 꺼내볼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 편지를 보낸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육성을 듣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은 뵐 수 없는 선지식의 묵은 서신을 꺼내보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따뜻하고 감사한 시간이다. 법문이다.



운허 스님(앞줄 중앙)과 대원성보살(앞줄 우측).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새해 소망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국대학교의료원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품은 새해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를 마음 깊이 새기며
올해도 하시는 일 속에 기쁨이 넘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020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